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55 1982년 6월 2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June 2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N 22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국 장 : 송 광 호

금리는 18.25% 로 올라
달러는 77.45¢ 로 내려
경제 악화일로에 정부는 방관자세

(오타와)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캐나다달러의 대미화 환율을 끌어 올리기에 안가힘을 쓰고 있는 정부가, 지난주에 이어 17일 중앙은행금리를 또다시 올리자, 시중은행들이 최우대금리(Prime Rate)를 8.2%로 인상했다.

한편 보수당을 비롯한 야당은 자유당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고, 불황대책을 위한 경제시책을 시급히 세우도록 강력히촉구했다.

보수당의 조·클락당수는 "달러의 가치는 매일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매케큰재무장관은 도대체 언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냐?"고 따졌다.

작년도에는 최우대금리가 21%까지 오른적도 있었다.

18일 미화1달러당 77.45센트를 기록한 달러가치에 대해 매케큰장관은 "그러나 캐나다달러는 미국화이외의 화폐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변명했다.

매케큰장관은 "연방정부는 현 상태에 대처해서 사용할 자금이 충분치 않다"고 비관적으로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봉급인상을 동결시키는 안에 대해서 자유당의원들로 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 이 안이 확대되면 사기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임금통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증권회사 우드·건디(Wood Gundy Ltd)의 수석경제관 존·그란트씨는 "최근의 캐나다달러 가치하락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캐나다달러의 실가치는 85센트정도이다. 달러가치하락은 움직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란트씨는 현재 캐나다의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므로 달러가치는 자동적으로 오를것이 기대된다면서 작년에 계속되던 유동자본의 대외유출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화의 가치는 상품·용역·자본등의 유입, 유출량에 따라 결정된다.

캐나다가 고금리정책을 쓰면 유동자본(Liquid Capital) 유입=캐나다달러수요증가=화폐가치 인상의 효과가 있다.

주요은행들이 결정한 18.25%의 우대금리(최우대 고객에게 주는 이자율)는 2주전 17.5%로 오른후, 이날 0.75%나 크게 인상된 것이다.

일반고객에게는 우대금리보다 약2% 높은 20%전후의 금리가 적용된다.

◆집으로 돌아가는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아기 니콜라양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

알젠틴 대통령 사임
패전이후 비난 못이겨

(부에노스·아이레스)영국과의 포클랜드전쟁에서 패한 알젠틴의 레오폴드·갈티에리대통령이 국민의 비난과 사임압력애 못이겨, 17일 대통령직과 군사령관직을 사임했다.

갈티에리장군은 이날 대통령관저를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군이 나에게 국가와 군을 통솔할 충분한 지지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전투의 와중에서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군인은 아니다. 국민이 이 점만은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부소식통은 그의 대통령직 사임이 18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여, 군부가 새 계승자를 선정할 때까지 알프레드·세인트·장 내무상이 임시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임한 레오폴드·갈티에리대통령

정부소식통은 군부가 민간인 대통령을 뽑거나, 포클랜드전쟁에서 가장 용맹을 떨친 바실리오·도조공군 사령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관』등 일제 개관
캐라반, 관객 5만명 예상

캐라반행사에서 한민족을 대표하는 「서울관」을 비롯, 44개 민속관이 18일 하오3시30분 일제히 개관됐다. 서울관개관식에는 이상훈총영사, 박인순한인회장및 주관자인 이대환캐라반운영위원장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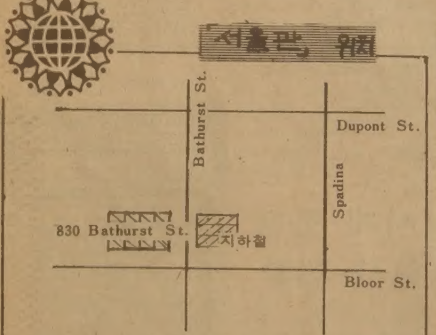
830 배더스트·스트릿(Bathurst St. 블루어 북쪽, 배더스트지하철 건너편) 가톨릭·인퍼메이션·센터 건물에 자리잡은 서울관은 고전무용(김용순무용연구소), 태권도(손명수도장)등을 정기적으로 보이고, 부채, 장구, 인형등 토산품과, 본한국일보 전시등을 마련했다. 지하실에서는 조영호노변회장 지휘로 한국음식을 만들어 판다.

5만명 미만의 작은 소수민족사회에 일간지가 있음을 자랑하기 위한 한국일보전시관은, 지난 1년간발행된 신문중 정치·경제·스포츠·문화등 9개부문에 해당하는 신문의 일부를 전시한 것으로, 본사 김정근 논설위원(온타리오 소수민족이민사 연구소 근무)과 그래픽·디자이너 임중남씨(National Drapery 근무)가 기획·제작했다. 「서울관」의 주차장은 별도로 없다.

「서울관」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은 함병섭한인회이사장(동양한약상사 대표), 「부시장」은 이병권캐나다체육회장이며, 금년 미스·코리아 「선」 윤혜련양등이 안내를 맡는다.

개관시간은 주중 저녁6시~밤11시, 토·일요일 하오3시~밤11시까지 이며, 입장료는 1일 통용 패스포트는 $5, 무제한 패스포트는 $10, 12세 미만은 무료이다. 특정민속관 1개소만 관람하려면 $3

「서울관」에는 약4~5만명이 다녀갈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측한다.



대목만난 보험회사
5개월간 1,210억원흑자

(서울18일=연합)정세가 불안하고,경기가 침체되자 국민들의 보험가입이 늘고 있다.

한국의 보험회사들은 금년도 첫 5개월간, 작년 같은기간보다 63.7%가 많은 1,210억원(미화1억6,460만달러)의 흑자를보았다.

한 보험회사의 보고에따르면 이 기간동안 보험료로 국민들이 지불한 총액은, 1년전보다 47.2%가 오른 3,024억원이며, 보상비총액은 1,585억원이었다.

특히, 생명보험 가입자가 늘어, 73.8%의증가를 보였다.

=리틀 야구=

82년7월3일(토)
코로네이션·파
70년1월1일이후 출생 자녀.
교회팀, 한글학교팀, 지역팀등 출전함.
연락처 : 한국일보사
전 화 : 533-2361

중학생에도 모국연수교육
캐나다선 120명 참가

(서울18일=연합)문교부는 해외교포학생 모국방문연수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중학생에도 실시키로 결정했다.

문교부 주최로 해마다 수백명의 해외교포학생들이 모국을 방문, 2주간 한국어·한국역사및 문화를 공부하고 돌아갔는데,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대학생들만 참석해 왔다.

금년도에는 캐나다 120명, 미국 3백명, 일본 450명, 총 870명이 이 연수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세당수회담서 시사
추가개각 있을듯

(서울17일=연합)전두환대통령은 이철수·장영자부부 사채사건과 관련, 각료 일부를 또 경질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임이후 최대의 개각을 단행한 전대통령은 16일 야당당수들과의 3자회담에서 이같은 추가개각을 시사했다.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아기
출생시 몸무게 1파운드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아기로, 태어날당시의 몸무게가 515그램(1파운드)였던 니콜라·맥기양이 생후 4개월만에 건강한 몸으로 17일 우먼즈·칼리지·하스피탈에서 퇴원, 귀가했다.

TTC운전사 루돌프·제대즈(36)씨와 간호원 샤메인·맥기(28)여사 사이에 태어난 니콜라양의 현재 체중은 4파운드로 건강사태도 양호하다.

임신 36주만에 태어나는 정상아들과 달리 23주만에 태어난 니콜라는 태어날 당시 신장이 29.5센치미터(11.5인치)밖에 안됐었다.

3개월간 인큐베이터에서 산 니콜라는 "비록작지만 투사정신에 투철, 자신의 생명보전을 위해 열심히 싸운 아기"라는 것이 기쁨에 넘친 아빠 제데즈씨의 논평.

정상여아의 태어날 당시 몸무게는 6파운드 정도이다.

세계적으로 진기한 기록을 모으는 「기네스북」에 의하면, 지금까지 죽지않고 살은 가장작은 아기는 1938년 영국에서 태어난 몸무게 283.5그램(10온스)의 아기 이다.

◀금주의 행사▶

(6월21일~27일)

◆24일(목)~28일(월) 상오11시~하오8시
성서도예·서예전 (작가 : 정문철)
곳: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Tor.)

◆24일(목)~27(일) 매일 하오7시30분 성전봉헌부흥성회
곳:토론토 제일한인장로교회

◆24일(목)하오8시 한인Y청소년합창단 발표회
찬조출연: 송경란·진경희·서정·김진숙
곳: 토론토한인YMCA강당
연락처: 536-1166(Mr. Kim)

◆25일(금)하오8시 조국을 위한 금식기도회
주최: 토론토한인 기독여성연합회
곳: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26일(토)상오10시 동우야유회및 경로잔치
곳: Morningside Park

◆26일(토) 07…오11시 동국대학교동문회·야유회
곳: Darlington Provincial Park
연락처: 844-8052 (정관풍)

◆26일(토)상오11시45분 연합친선골프대회
주최: 한인연합교회 골프클럽
곳: Kleinburg Golf Club
연락처: 292-2988 (최광호)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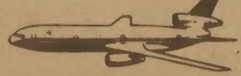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IATA
어디로모실까요?

모국방문특별요금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B) 535- 6004
R) 293- 9970

하기한글학교·학생모집
(무료)
기 간 : 7월5일(월) 5주간
월~금요일 오전9시~11시
장 소 : Heydon Park Secondary School
(YMCA서남방 200m 약도참조)
모집인원 : 유치원~8학년 약80명
특별활동 : 금요일은 야외수업
(소풍 · 견학)
신 청 : YMCA (536-1166 미스터 김)
문의처 : 한인YMCA
(☎ 536-1166 미스터 김)
교장서리 : 김정숙 선생
※여름학교는 8주간 오전9시~오후3시까지하며 (오전8시~오후6시까지 어린이를 맡아줄 수 있음) 운동·태권도·무용·미술·바이올린·기타·피아노등의 취미과목외에 수학·영어·과학등의 개인과외지도도 하여드림.
교사진은 : 김정숙·권혁일·우초수·홍진수·정호영·김필숙·윤영희·김영훈·김영인·최귀암·서정·강미희·크리스티나정·조안리·김창열 외. 스쿨버스도 운행함(선착순).

하기영어학교 학생모집
(무료)
때 : 7월5일(월) 5주간
월~금요일 오전9시반~11시반
곳 : Heydon Park Secondary School
(약도참조 YMCA서남방 200m)
모집인원 : 초급반 15명, 회화반 15명
대 상 : 할머니, 할아버지, 성인및 남녀청년
신 청 : YMCA(536-1166 미스터 김)

주최 : 토론토시교육위원회
주관 : 한인 YMCA
후원 : 온타리오주정부문화부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 주택·대지·아파트
* 가게·상가·사업체
* 이민이나 면세를 위한 투자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가능
각종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신속 정확하게 성심 성의껏 노력 하겠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 력—
★수퍼마켓 소유 운영2년
★무역회사 소유 운영2년
★부동산업 종사 7년이상
★케네디안 대학 졸업
(416) 497-8900 (B)
(416) 633-7892 (R)

채 준 성
DAVID CHAE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WORLD CUP '82

이변 속출 월드컵축구

항가리, 10: 1의 신기록세워

스페인에서 13일부터 시작된 제12회 월드컵축구대회는 많은 이변을 속출했다.

지난 제11회 월드컵축구 챔피언인 아르헨티나가 개막경기에서 예상을 뒤엎고 벨기에에 1:0으로 패해 망신을 샀다.

경기5일째인 17일, 4조경기에서 쿠웨이트는 80년 올림픽챔피언 체코슬로바키아의 발 뒤꿈치를 물고 비겨, 또한번 축구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로써 쿠웨이트는 알제리아, 온두라스, 카메룬과 함께 이번산출의 복병그룹에 속하게 됐다. 알제리아는 수요일 서독을 2:1로 이겼으며, 온두라스는 같은날, 스페인과 1:1로 비기고, 신출나기 카메룬도 화요일 페루와 0:0으로 비겨, 우승후보국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막강한 쿠웨이트는 체코와 비겨, 선수마다 $8,600를 보너스로 받았다. 이겼을 경우에는 $17,000을 준다. 또, 2차예선전에만 올라가면, 선수당 $20만을 보너스로 받는 횡재를 누린다.

한편, 같은날 2조의 오스트리아와 칠레의 경기는 경기 1시간전에 온 폭우로 잔디가 미끄러워, 양팀모두 제대로 실력발휘를 못한채 전반 21분만에 오스트리아가 헤딩슛으로 1점을 올려, 1:0으로 칠레를 눌렀다.

5조의 유고슬라비아와 북아일랜드 경기는 지금까지 경기중 가장 지루한 경기를운영, 0:0으로 비겼다.

한편, 월드컵경기 2일째인 14일,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브라질은 다크호스 소련에 2:1로 역전승, 예선6조에서 서전을 장식했다.

단순한 승리보다는 무적의 기사처럼 화려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 브라질은 질풍같은 공세를 퍼부었으나, 잘 조직된 소련의 수비에 막혀 고전을 면치못했다.

이에앞서 비고에서 열린 1조의 이탈리아가 폴란드와의 태클과 힘에 의존하는 난전에서 0:0으로 비겼다. 양팀모두 여러번의 득점찬스가 있었으나, 슈팅이 약해 양팀 GK는 거의 할 일이 없었다.

3째날인 15일 경기는 6조의 스코틀랜드가 뉴질랜드를 5:2로 격파, 1조의 페루는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카메룬과 이렇다할 공격없이 지리멸렬한 게임을 운영, 0:0으로 비겼으나 실질적으로는 월드컵 경험이 많은 페루가 창피를 당했다.

이날의 이변은 3조의 항가리가 라이벌 엘살바도르를 파죽지세로 밀어붙여 10:1로 승리, 월드컵사상 최고득점 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이전에 수립된 최고득점은 54년 월드컵챔피언인 항가리가 한국(남한)을 9:0으로 격파한 것과, 74년 유고슬라비아가 자이레에 9:0으로 압승한 것이다. 항가리가 50년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4일째 날인 16일에도 예상을 뒤엎는 일이 일어났다. 강력한 우승후보이며, 54년과 74년 월드컵에 우승한 전력이 있고, 2년연속 유럽 최우수선수로 뽑힌 루메니게를 가진 서독은 월드컵에 처음 출전한 알제리아에게 2:1로 패해 월드컵사에 기리 기록될 이변을 빚었다. 이번 알제리아의 승리는, 66년 북한이 이탈리아를 1:0으로, 50년 미국이 영국을 1:0으로 이긴것과 같은 주요 이변중의 하나이다. 서독은 루메니게가 한 골을 넣었다.

백중지세로 예견됐던 4조의 영국과 프랑스 대전은, 영국이 3:1로 프랑스를 눌렀다. 프랑스 수비는 영국의 위너(Winger)·트레보·프란시스와 스티브·코펠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헛점을 보이곤했다. 66년 월드컵챔피언인 영국은 비교적 쉬운 상대인 체코슬라바키아와 쿠웨이트와의 예선전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월드컵주최국이며, 우승후보국의 하나인 5조의 스페인도, 처음 출전한 온두라스에게 1:1로 비겨체면을 떨어뜨렸다. 스페인은 시종일관 우세한경기를 펼쳤으나, 공격진의 마지막 문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17일 2조경기에서 오스트리아의 브루노·페쩨이(오른쪽)가 칠레의 카를로스·카스젤리에게 슬라이딩 태클을 시도했으나 골은 벌써 발사됐다. 오스트리아는 페루에 1:0으로 이겼다.

토론토심포니 여름공연 야외무대 「포럼」서 펼쳐

토론토·심포니의 여름시즌공연이 28일(월) 저녁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으로 막을 연다.

여름밤 온태리오 호수상의 온태리오·플레이스의 야외무대 포럼(Forum)에서 있을 6주간의 여름공연은 팝송 작곡겸 연주가 헤이굿·하디(Hagood Hardy)" 성악가 모린·포레스터(Maureen Forrester)뿐 아니라 발레리나 카렌·케인(Karen Kain) 등 캐나다의 톱클래스 예술인들과의 협연으로 꾸며진다.

특히 에리히·쿤젤지휘로 98명 오케스트라 단원전체와 85명의 토론토·심포니·유스·오케스트라, 음악의 클라이맥스인 축포발사를 위해 포트·욕 근위대의 대포까지 동원되는 "1812년 서곡" 연주가 있는 28일(월) 밤과 토론토·맨델스존·콰이어가 등장, 베토벤 9번 교향곡이 연주될 8월6일(금) 밤의 연주는 음악팬들의 기대를 크게 모은다.

연주회 입장은 온타리오·플레이스 입장자에게는 무료이며, 특히 어린이의 입장도 환영되므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온타리오·플레이스의 입장료는 성인 $4, 13세 미만 어린이 $1,(보호자 동반 없을경우 $2,50) 노인 무료이다. 파킹은 $3,00 개장시간은 매일 아침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요일은 밤11시까지이다. 공연스케쥴 문의처는 전화 965-7711 온타리오·플레이스나 533-2861 (조미래).

노학생들 홍겨운노래

Y토요학교 종강 학예회

지난 12일 상오10시반~하오1시 토론토 블루어·웨스트의 빅포드고교 강당에서 토론토 한인YMCA토요학교 학예회가 100여명의 학생·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숙 교사 사회로 열렸다.

한글교실 3반, 영어교실 4반의 학생들의 종업식을 겸한 이날 학예회는 김창열 교장의 인사말에 이어 영어회화반 서정양의 "이별의 노래" 독창을 비롯, 무용반의 춤, 바이얼린 독무, 태권도 시범, 영어반 할머니들의 "오 캐나다", "클레멘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합창이 있었다.

특히 12띠(12간지)에 관한 영어연극은 열띤 박수를 받았다.

학예회와 겸하여 12명의 우등생에 대한 시상이 있었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뜰에 나가 일동 음식을 나누며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불황진단 지상 FORUM ⑥

중소기업의 불황대책

현 영 일(공인회계사)

——중·소기업체의 운영면으로 본 단기적이고, 일반적인 진단과 대책——

불경기가 있을때, 가장빨리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가 바로 중소기업이다. 그 원인으로써는 소자금이고, 단·장기적인 사업계획의 결여, 신속하고 정기적인 손익결산보고와 타계책의 결여, 재고품의 종류(Product Mix)와 재고안매 회수율(Inventory Turnover Ratio)과 그의 조직적인 조절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바로 중·소기업체가 항상 감당하여야하는 전형적인 문제점등이다.

더구나 현재의 고금리는 재고품유지비(Inventory Carrying Charges)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매출이익(Grossprofit)을 능가하게 만들기도한다

경제불황에 대한 대책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나누어보자.

▲가. 손익결산보고

가능한한 빨리 실제적 결산보고를 준비하여 현재 운영면의 차질을 검토·비교·연구하여 예산의 준비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단기적인 목표를 세운다.

는 지출방법과 현금판매(C.O.D포함)등 강구한다.

과거 회수기간을 연구하여 앞으로의 운영자금 조정의 제반자료로 사용한다.

▲다.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단기예산

일정기간동안에 필요한 자금예산과 그 조달방법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예산안을 작성한다. 매상고 예산, 구체적이 지출비를 책정, 운영자금의 여유에 따라서 단기예금 또는 융자를 은행측과 상의한다.

가능한한 4주(일년 13주기)마다 또는 월별로 정기적으로 예산과 실제적인 결과를 비교, 다시 예산을 조정한다. 예산초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2·3개월 계속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라. 재고품의 종류와 수량조정 계절과 유행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재고품은 한때 많은 수량의 판매와 좋은 매출총이익(Gross Profit)으로 재미를 본다. 그러나, [redacted] 상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속히 염가로서도 처분, 운영자금을 만들고, 새상품을 구입한다.

현영일씨

ok),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봉급에서 세금및 기타항목을 공제한후 실제받는 수입), 지역적인 특색성(영국계이태리계등등)과 경쟁여부에 따라 새로운 품목을 시험삼아 판매(Pilot Marketing Test)하여 보는것도 매상을 올리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에는 물론 상품공급자와 결탁하여 대판매로 소개하여야하고, 처음부터 과중한 구입은 삼가한다.

상품전시(Inventory Display)적인 효과도 재검토하여 고객의 즉흥적인 구입성(Impulsebuying)을 촉진시키며 매출총이익률(Gross Margin)이 높은 상품을 눈에 잘

"버는것 같은데 돈이 없다"

재고관리 : 자금·외상 신경써야

▲나. 운영자료조정

일반적으로 현금매매하는 사업체는 자연히 운영자금 조정을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 흔히들 "매상도 좋고 돈도 벌은것 같은데 돈(현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들 한다.

사업체에서 필요한 운영자금이 생활비·유흥비·교통비등의 항목으로 제한이나 통제없이 나가기 때문이다. 운영비와 개인인출비를 분명히하여 계획적으로 지출해야한다.

외상매출(Credit Sales)을 취급하는 기업체는 우선 외상상태를 검토하기 위해 외상매출금 잔고기간분석표(Aged Accounts Receivable Lisings)를 만들어서 기한내에 지불되지 않은 구좌는 지불을 촉구한다. 이 잔고분석표는 매월 정기적으로 검토, 오랫동안 많은 외상 매출잔고를 가진 고객에게

썩기쉬운 야채나, 과일을 취급하는 사업체는 요일에 따라 소요량을 예상, 그날 또는 다음구입까지 꼭 팔 수 있는 것만큼 사서 상하여 버리는 것을 최저로 제한하고 구입시에 품질선택에 신경을 쓴다.

재고품중에서 판매회수율(Inventory Turn over Ratio)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구입의 회수와 양을 조정하여 운영자금 융통성을 증가시킨다. 만일 5만달러의 재고를 유지하다가, 4만달러로 줄이면 1만불의 운영자금이 생겨, 재고견지비도 년2천불($2,000=$10,000×20%(Bank Overdraft Rate 20%로 가정)이나 절약된다.

도매상의 대매출에 의한 대량구입은 판매회수율과 물가인상등을 고려, 구입량을 조정한다.

지역적인 고객의 소비경향과 습성(Consumer's Behavi

보이게(Eye-Looded Display)한다.

▲마. 세금면제(Tax Holidays)기간을 최대이용

온타리오주정부의 예산특혜로 중소기업회사가 앞으로 2년동안 갖게된 새금면제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회사와 개인소득세금을 최소한으로 하는것이 세법적인 강구책이라고 보겠다.

[illegible]

1)인건비 절약의 가능성타진.

2)세무감소와 지연을 위한 세무계획중에서 부동산투자를 위한 섯니,B,B과 투기성이 높은 Oil & Gas Drilling Fund, Canadian Movie Film등을 이용한다.

3)부부간의 소득분배(Income splitting).

4)소유·경영자금(Owner & Manager)을 위한 봉급과 주식배당금(Salary & Dividene Mix)조정으로 세금절약.

소프트볼의 연혁과 규칙 3

박재선(리틀야구진행위원장)

◆마스크…(3-8)포수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선수교체…(4-4)누구나 스타팅선수는 퇴장했다가 한번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단 그선수는 전과 같은 타순을 가져야한다.

◆경기회수…(5-3)정규경기는 7회전으로 한다.

◆작전모의…(5-9)팀감독과 타자 또는 주자간의 작전모의는 한 이닝에두번까지할수 있다.

◆투수와의 모의…(6-10)팀감독과 각 투수간의 작전모의는 한 이닝에 한번밖에 못한다.

◆투구자세…(6-1)투수는 두발을 투구판에 접촉하고 1초이상 10초이하 정지하고 있다가 언더핸드 모숀(팔이 몸과 평행하게 돌린다)으로 투구한다. 단 윈드밀(풍차)모숀은 1선회(한바퀴)에 한한다. 이것을 위반했을때는 데드볼이 되고 투구는 "볼"로 선언되며 각 주자에게는 1루씩 진루시킨다.

◆투구연습…(6-7)수비가 시작될때 투수연습은 다섯번(5)까지임.

◆투구실수…(6-11)투수가 투구동작중 공이 미끄러져서 나오면 인 플레이가 되며 피위급 이상에서는 주자는 모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스트라이크…(7-6)

1)타자가 스윙하지 않고 공이 땅에 닿기전에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온 것

2)타자가 스윙했으나 맞추지 못한것

3)화울 팁을 포수가 받은 것

4)0 또는 1스트라이크때 화울 비구를 받지 못한것

5)0 또는 1스트라이크때 타자가 친 공이 타자석에 있는 타자에게 맞은것

6)타자가 헛쳤을때 투구가 타자의 몸 또는 의복에 닿은것

7)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하는 투구가 타자를 맞춘것(이때는 데드볼이 되고 주자는 먼저 베어스로 돌아가야한다.)

◆볼…(7-7)

1)불법으로 던진 공(투구)은 볼임.

2)투수가 20초이내에 투구하지 않았을때는 "볼"선언함.

◆타자는 아웃임(7-11)

1)타자가 개조된 뱃 또는 규격에 맞지않은 뱃을 가지고 타자석에 나타났을때 혹은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임.

2)인필드 후라이일 경우 즉 0 또는 1아웃, 주자는 1루와 2루, 또는 만루때 내야수들이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후라이를 쳤을때임. 여기에서 후라이라 함은 라인드라이브 또는 번트는 뜻하지 않는다.

3)0 또는 1아웃때, 주자는 1루, 1루+2루, 1루+3루 또는 만루때 내야수가 평범한 노력으로 받을수 있는 훼어비구(라인 드라이브, 번트 포함됨)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을때임.

(트랩트볼=쇼트 바운드로 공을 잡은것은 고의적 낙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볼은 데드, 주자는 제자리로 돌아간다.

4)0 또는 1아웃이고 1루에 주자가 있을때 3스트라익스를 얻으면 아웃.

5)제3스트라이크를 치려고 하다가 맞지않고 공이 타자에 맞았을 때임.

◆언 덱크 타자…(7-13)다음번에 칠 타자이며 직경5피트 원내에 대기한다. 그외 선수는 모두 다그아우트 또는 벤치에 있어야 한다.

◆타자는 주자가 됨(8-2)

1)제3스트라이크를 포수가 받지 못했을때임. 단 0 또는 1아웃일때는 1루에 주자가 없어야 하고, 2아웃일때는 언제든지 가능함. 이것을 "제3스트라이크룰"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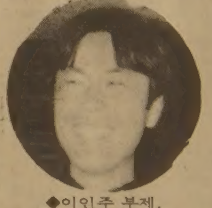
2)4볼이 선언됐을때인데 이때 경기는 인 플레이다.

3)포수의 타자에 대한 타격방해시, 이때 경기는 데드임.

4)타구가 내야수를 통과한후(투수는 제외) 또는 내야수(투수포함)에 닿은 후 훼어지역내의 주자 또는 심판원에 닿을때인데 이때 경기는 인플레이다.

5)투구가 타자를 맞추었을때인데 이때 투구가 땅볼이라도 해당된다.

이인주부제 축하연 한인천주교서 봉직



◆이인주 부제.

토론토한인천주교회의 보좌신부가 될 이인주(버나드) 신학생의 부제서품 축하파티가 지난 주일(13일) 저녁 먼다스·웨스트의 중국식당에서 열렸다.

이 파티에는 고종옥 주임신부, 캐네디언 성당(빅토리아·팍×엘스미어 소재)보좌 최기식 신부, 사목위원 내외, 각구역 임원내외등 80여명이 모였다.

이 부제는 이달초 토론토에서 부제서품을 받았다.

부제는 신부가 되기전(신품을 받는다고 함)받아야 하는 타이틀로 평상시 신부와 같은 복장을 입으며 보통 「부제님」이라고 불리운다.

세계최초 TV시계 등장

일본 세이꼬회사 개발

세계최초의 TV시계가 일본 "쎄이꼬"시계생산회사 「수와세이꼬」사에의해 개발되었다.

TV시계는 크게 3부문으로 나누어져 첫째 부문은 3cm(1,2inch)의 투명 크리스탈유리 스크린이 있는 무게 1,5온스의 손목시계, 둘째는 안테나 구실도 하는 헤드·폰, 세째는 6,7온스 무게의 포켓사이즈·리시버로 돼있다.

생산은 6개월후나 시작 될 것이며, 가격은 미화 $400 정도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소니의 5cm(2inch) 마쯔시다의 3,8cm(1,5cm) 미니형 흑백TV가 시판되고 있으나, 튜브가 있는것이 TV시계와 다른 점이다.

세계최초의 TV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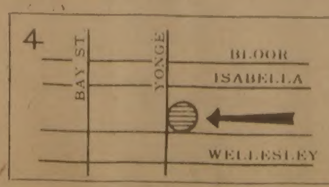
江戸房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YMCA 합창단 제1회 발표회

때 : 6월24일(목)오후8시
곳 : 한인YMCA2층강당 (931 College St)
프로그램 : 합창및 중창(지휘~안병원 · 반주~김진숙)
특별찬조 : 쏘프라노~송경란 · 바이올린~서 정
첼 로~진경희 · 피 아 노~김진숙
입장권 : YMCA(536-1166) · 합창단후원 이사와 합창단원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5) 좌석은 100명으로 제한.
다 과 : 음악회후 다과가 있음.
1982년 6월 일

Y합창단 후원회 이사장 이영현
토론토 한인Y 총무 김창열

〈후원이사〉 강공선 · 강찬영 · 강학수 · 구상회 · 김광웅 · 김명규 · 김문고 · 김순창 · 김종욱 · 김창열 · 김태진 · 김창범 · 송관현 · 송의섭 · 안병원 · 유영갑 · 유형승 · 윤여경 · 이영일 · 이준식 · 이석현 · 이축길 · 이영현 · 전택균 · 조한철 · 조덕남 · 차선겸 · 채희홍 · 최호영 · 최승락 · 한광건 · 한상훈 · 한철환 · 홍승규.

웨스톤 여름한글학교
학생모집(무료)

때 : 7월5일(월)~8월6일(금)
5주간, 월~금요일
오후1시 15분~3시45분
곳 : Daystrom Public School
(삼복식품 뒤)
대상 : 유치원~8학년 학생
모집인원 : 약 75명

문 의 처 : 한인YMCA
(536-1166 김창열)

이 한글교육은 North York Board of Education의 Heritage Language Program 입니다.

〈소 론〉

인류종말이냐, 핵군비 축소냐①

신 봉(한인연합회 이사장)

바야흐로 U.N.에서 제2차 UNSSOD(United Nations Special Session for Disarmament)가 개최됨과 때를 같이 하여 비핵무장운동이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 글은 캐나다 연방국회의 외교국방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와 여러 신문, 잡지등에 실린 기사들을 종합하여 발췌한 것이다.

앞으로 5회에 걸쳐 연재될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캐나다는 미·소 핵전쟁의 죽음터
〈2〉 미·소의 핵무기 비교
〈3〉 1메가톤의 원자탄이 토론토에 떨어진다면
〈4〉 북미의 방공망과 캐나다의 역할
〈5〉 세계여론과 앞으로의 추세

◇강신봉

밴쿠버에 살고 있던 커티스라는 젊은이의 한 가족은 이 지상에서 2년 이내에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두려워하던 나머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이사를 하기로 작정하였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5대양 6대주 어느 곳을 훑어보아도 그리 안전해 보이는 곳이 별로 없었다. 곰곰 생각끝에 제일로 안전해 보이는 한 섬을 찾아냈다. 남미의 저쪽 맨끝에서도 400마일이나 떨어진 외딴섬 「휠크랜드」라는 섬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작년 가을에 그곳으로 이사를 하였다.

이들은 그 외딴섬에 가서 양이나 치며 몇년만 살다가 핵전쟁이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였지만 세상일은 그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사한지 반년만에 아르젠티나 군인들이 들이닥쳤고, 단숨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인간지사 새옹마"란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이다. 그들의 소식은 끊어졌다.

한국에서 이차대전, 6.25동란, 그리고 지독한 군대생활을 마치고 캐나다로 이민보따리를 쌌을때에 우리는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가장 안전한 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고 혼자서 생각해 본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한 안정 속에서 나는 십여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날마다 큰 제목으로 계속되는 핵전쟁의 스토리를 읽어보니 그것이 아니다. 미국과 소련이 본격적인 핵전쟁을 벌인다면 미·소 양국의 대륙간 탄도탄이 캐나다 상공으로 날아오고, 안티미사일을 쏘아 상대방의 미사일을 격추시킨다면 그 많은 핵폭탄은 모두 캐나다 상공에서 터지게 되며, 우리는 그 핵진만 마셔도 수백번 죽게 된다는 엄청난 기사들이 연재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도 잘 안보고 그런 이야기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일 죽어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만, 이 곳에서 돈 벌어서 자식 잘 키우고, 그래도 큰 희망을 걸어 살아보겠다던 뜻이 하루 아침에 재로 변해 버릴 것을 생각하니 오늘의 이 엄청난 현실의 기사를 "식자우환"이라고만 돌려버릴 수는 없을 것같다.

세계각국에서는 수십만 군중들이 연일 데모를 벌이고, UN에서는 앞으로 몇개월간 이 핵무기의 군축문제를 놓고 신랄한 비판이 벌어질 것이며, 레이건과 브레즈네프가 가슴쪽에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무언가 인류의 종말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도 같다.

캐나다국회는 UN에 특별위원단을 파견하였고 토론토·밴쿠버·핼리팩스·UN본부등 대도시에서는 수만명이 데모를 벌였으며, 미국이 캐나다에서 시험해 보려는 크루즈미사일은 결사반대의 군중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세계의 평화주의자들은 모두가 앞을 다투어 떠들고 있다. 이들의 소리가 무엇인가?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약 50,000기에 달하는데, 그 핵무기의 총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탄의 백만배에 해당되고, 지구상의 인류를 20여회 이상 파괴하고도 남는 힘이라고 한다. 세계의 인구가 45억인데, 그 핵무기의 위력을 TNT로 환산하면 약 135억톤에 해당한다고 하니 인구 일인당 3톤의 TNT를 안고 인류멸망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핵무기들이 간단히 몇몇 곳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에만도 수백처에 널려져 있으며, 잠수함, 군함, 비행기, 어쩌면 인공위성에까지 매달아 놓아 아차하는 순간에 모두를 폭발시킬 대비를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험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소련의 대륙간 탄도탄이 워싱톤까지 날아오는데 30여분 밖에 안걸리고, 대서양 연안에 와있는 소련의 잠수함에서 공격을 한다면 미국의 동부지구 대도시는 12분 이내에 파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격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의 스위치는 상대방의 탄도탄이 날아옴과 동시에 또 공격을 하게끔 민첩한 방공망으로 감싸져 있다. 문제는 누가 먼저 공격하고, 먼저 죽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성을 콘트롤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히틀러같은 엉뚱한 영웅심이 나타나거나 자칫 실수를 하여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단번에 인류가 멸망할 위기를 갖고 있으니, 그리고 너무도 대량생산, 다양배치를 하여 POSITIVE CONTROL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고 있으니 위기는 바로 그러한 실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겠다.

인간의 실수와 망령이 인간을 파괴할 수 있는가? 인간이 핵무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핵무기가 인간을 제거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계속)

◆소련이 대륙간 탄도탄으로 미국을 먼저 공격하고, 이를 미국의 NORAD 방공레이다가 포착하여 소위 ANTI-MISSILE을 발사할 경우 양국의 핵탄두는 모두가 캐나다 상공에서 폭발하게 된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10>

어떤 情事 ⑩

"내가 빤히 보고있는데 남자를 뺏어가…"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문자가 취한 몸을 잘 가누지못해 선글라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있는데 중년부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그녀 역시 많이 취해있었다. 그녀는 문자를 노려보면서 삿대질을 했다.

「야. 네가 뭔데 나의 남자 뺏니?」

다른때 같으면 놀라겠지만 문자는 워낙 취했기때문에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었다. 그녀는 게슴츠레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야. 내 말 안들리니?」

먹상이라도 잡을듯이 달려들다가 엎어지는 바람에 다자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이며 잔들이 밑으로 와르르 쏟아져내렸다. 사람들이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듯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년! 이 잡년! 내가 빤히 보고있는데 남자를 뺏어가? 아무리 눈뜨고 코베가는 세상이라지만 그럴수가있어? 나 세상에 오래 살다보니까 사람 훔쳐가는 년도 다있네.」

「내가 언제 훔쳐갔다는거야. 제발로 걸어왔지.」

사람들이 와아하고 웃었다. 중년여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씩씩거리며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그러나 워낙 술에 취했기 때문에 문자가 슬쩍 일어나자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이년! 너죽고 나 죽자! 이 도둑년이 누구를 뺏어?」

여인은 악을 고래 고래 쓰며 다시 달려들었다. 음악도 멎고 싸우는 패 숭숭해졌다.

선글라스는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고, 문자는 그 곁에 달라붙어 있었다. 소란이 일어나자 지배인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이분 동행이십니까?」

지배인이 중년여인을 가리키며 선글라스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선글라스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중년여인은 눈이 뒤집혀 지길이 뛰었다.

「아니, 뭐라고?! 이도둑놈이 난도둑놈! 나를 이래놓고 이제와서 모른다고? 아이고, 미치겠네. 여러분들, 들어보시오. 이놈이 서울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와서는 모른다고하는데 세상에 이럴수가 있어요?!」

「따라온게 바보지.」

위에 하나가 놀리는듯이 쏘아붙이자 여인은 그 사내한테 달려들었다. 눈치 빠른 지배인은 더이상 머뭇거리지않고 여인을 제지했다.

그의 눈짓에 따라 기도를보는 억센 사내들이 여인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무자비하게 밖으로 끌어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울부짖는 여인을 뒤로하고 문자와 선글라스는 나이트 클럽을나와 호텔 로비로 갔다.

프론트에서 열쇠를 받아든 문자는 사나이에게 매달려 엘리베이터를 탔다.

「당신, 잔인하군요.」

끌려가던 여인을 생각하고 문자가 말했다.

「당신이 더 좋았기 때문이지.」

사나이는 서슴없이 말했다.

「키스해줘요.」

문자는 승리감에 취해 사나이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선글라스는 그녀를 으스러지게 끌어안고 입술을 덮쳤다.

朴男 그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 1 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북한수용소 해방촉구 범민족 서명운동

김일성은

지난 30여년동안 무고한 북한동포들의 피와 땀을 수탈하면서 이제 그아들 김정일에게 왕관을 세습하려 하고 있으며, 그 세습에 반대하는 북한동포들을 가차없이 탄압하고 있는것입니다. 강압에 의해 강제노동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선량한 동포가 10만명이상이며, 이들의 해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운동을 전개하오니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일성은「붉은 파쇼왕조」에 항거하는 동포들을 수용소로부터 해방하라!
◎김일성은「특별독재대상구역」을 철폐하고 민족과 인류앞에 사죄하라!

번호	성 명	서 명	주 소 (또는직장)

연락처 :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주관 : 승공문화협회

「主務長官」적절한시기에 引責更迭"

全대통령·3黨代表 靑瓦臺회담 3시간5분

政治활동被규제자 段階的 解禁고려

平和的 政權교체 추호도 변함없다

野、拘束者석방·經濟特委구성 건의

全斗煥 대통령은 16일낮 民正黨의 李載瀅대표위원 民韓黨의 柳致松·국민당의 金鍾哲총재등 3黨대표들을 靑瓦臺로 招致해 회담을 갖고 李哲熙 張玲子부부 巨額어음 사기사건의진상과 背後규명및 관계장관인책문제를 비롯해 당면한 경제문제등 時局수습방안과 國政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午餐을 겸해 3시간5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全대통령은 改閣문제에 언급『지난번 主務장관들을 바꾸려다 사건수습이 급해 보류한것이며 留任은 사실상 罰을준것』이라고말하고『이제 일단 사태수습도 대충 끝났고해서 그시기를 一任해주면 적절한 시기에 更迭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고 黃善必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 정치활동被규제자의 解除문제에관해『아직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생각이나 改悛의 情이 있는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해제시키도록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상황속에서 풀어나가야할 山積한 국가적과제들에 직면하고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은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공직자의 솔선수범은 물론 국민모두가 단합속에 衆智를 모으고 모든 力量을 결집、어려운 局面들을 타개해 나감으로써 희망찬 국가건설의 새출발을 굳게 다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黃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 柳民韓黨총재는 全대통령에게 巨額어음 사기사건과 관련한 閣僚引責, 정치활동피규제자해제, 구속자석방, 국회활성화, 평화적 政權교체의 기반조성, 지방자치제의 단계적 실시등을 건의했으며 金국민당총재는 각료인책, 국회내에 政治발전特別委구성과 非常경제대책 特別委 구성, 이른바 한탕주의의 척결문제등을 건의했고 李民正黨대표위원은 일련의 경제활성화대책을 건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3黨대표들은 이번 會同과 같은 모임을 앞으로 수시로 가져 國政문제들을 협의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全대통령도 시간이 허용하는대로 3黨 대표들을 자주 만나 國政에 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한것으로 黃대변인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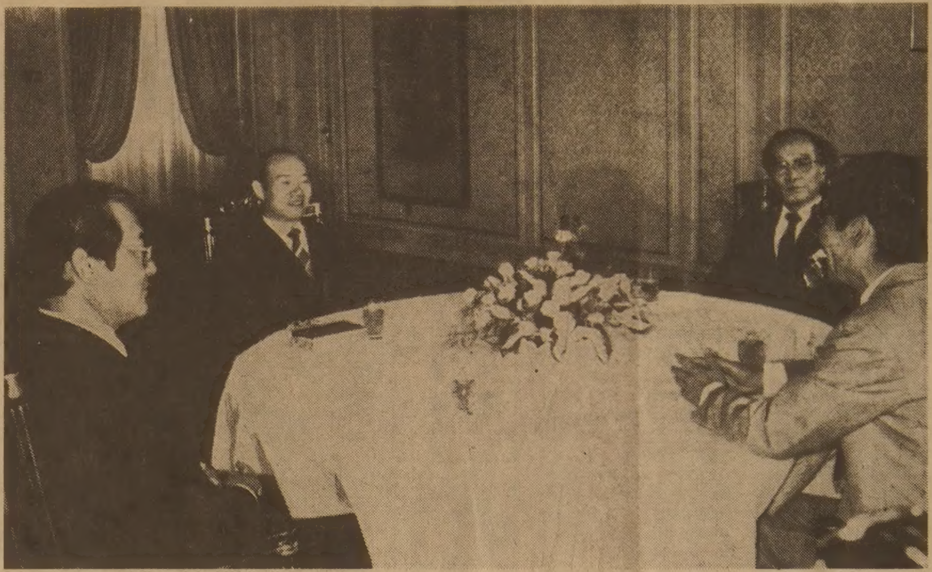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각 당의 건의를 충분히검토해서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나는 처음부터 각오를 굳게했지만 내임기중 평화적정권교체전통을 확립해 놓아 새로운 정치풍토를 기어이 이룩하겠다는 결심은 앞으로도 추호의 변화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내임기중평화적정권교체의 선례를꼭한번 남기고싶다』고밝히고『이렇게되면이땅에민주주의가 토착화될것이며 이렇게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사회가 꼭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이어『나는어떤일이있더라도 부정부패를 一掃해놓을각오』라고 단호히 말했다.

全대통령은『이번巨額어음사기사건은 조용히 간단히처리하려면 할수도있으나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에 대해서는 지위高下와 친척여부를 막론하고 전부 공개적으로 明明白白하게 밝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철저히 조사를 시킨것』이라고 밝히고『이번사건을 계기로 비록내 친척이라도 法에어긋나면 단호히 처벌하는 전통을 세워야하며 금융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도 좋은轉機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청와대회담에는 청와대측에서 許和平정무제1수석비서관, 金在益경제수석비서관, 黃善必대변인이 배석했으며 회담이 진행되는동안 3黨대변인들은 별실에서 발표내용등을 협의키위해 대기했다.



◇時局收拾의 現場 기탄없이 진행된 時局收拾의 현장。 全斗煥 대통령의 招致형식으로 이뤄진 16일의 靑瓦臺3黨대표회담에서는 李哲熙·張玲子부부사기사건의 수습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개진과함께 정치활성화 방안, 景氣대책등도 함께 논의되었다。이날의 회담을 계기로 政局은 梗塞을풀고 정부와 정당은 민심수습과 景氣浮揚에 적극 나설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하고있다。 (사진 左로부터 柳致松民韓黨총재, 全대통령, 李載瀅民正黨대표위원, 金鍾哲국민당총재)

"梗塞政局 완화 실마리"

3黨代表 會談결과에 表明

民正 民韓 국민등 3黨代表들이 모인 16일의 靑瓦臺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梗塞되었던 政局은 다소 완화될것같다.

李載瀅 民正黨대표와 柳致松 民韓, 金鍾哲 국민당총재는 이날 회담결과에 대해『사건해결의실마리를푸는계기가 될것같다』고 모두 만족을 표시했다.

民正 民韓 국민당은 이날 하오 회담이끝난뒤 일제히 黨職者회의와 黨務會議를 열어 靑瓦臺회담에대한보고를 들었는데 各黨은 곧追加改閣이 있을것이라는 보고에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民正黨은 금주중에 중앙집행위원회, 民韓黨은 17일의 黨원총회 그리고 국민당은 黨務會議를 각각열고 靑瓦臺회담에관한 공식보고를듣고 앞으로의 대책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곧 改閣있을듯"

柳民韓총재

柳致松民韓黨총재는 청와대회담이 끝난후『오늘 회담은 時局전반에걸쳐 도움이될만한 실마리를 찾는계기가되지않았나 생각한다』고 평가하고『곧改閣이 있을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날 회담에서『정치被규제자를 단계적으로 解禁하고 정치범이나 구속종교인및 학생들에대해서 개전의 정이있으면 석방하겠다는 대통령의언명은 하나의 進展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全대통령이 시국수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앞으로 3黨대표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국수습과 민주화의 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各黨서 聲明

民正·국민등 각정당은 16일 靑瓦臺회담이끝난뒤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民正黨金[illegible]대변인=국가원수와 정당대표들이 대화와 이해로 시국문제해결에접근한 유익한 회담이었다. 이 靑瓦臺회담으로 民心이 수습되고 與野협조와 국민화합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 民正黨은 이회담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국수습에 앞장섬은 물론 경제시책등 이회담에서 거론된 제반문제를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시켜 나갈것이다.

▲국민당李成一대변인=우리는 金鍾哲총재가 국민의소리와 우리黨의입장을 대통령에게 직접밝힐수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靑瓦臺회담이 有益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金총재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었다는 것에 아쉬운감이 있으나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위해 제시한 金총재의 주장이 앞으로 존중되어 관철되기바란다。

▲民社黨李康伯대변인=오늘있은 靑瓦臺회담내용이 국민의기대에 부응할수있는 대책에는 미흡하지만 여야는이번회담을 黨利에 이용하지말고하루속히시국을수습하고침체된 경제활성화가 이룩될수있도록 회담결과를 조속히실행할것을 촉구한다.

▲民權黨李永權대변인=현재의 난국이 張여인사건으로 더욱 심화되고 그에따른 국민의 불신과 의혹이 짙어진것은 公知의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한자세를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시간을 끌며 미봉으로 일관하는 처사는 규탄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시리아軍 大決戰태세

베이루트東쪽 兩軍、兵力·탱크集結

4시간계속된 砲擊戰 뒤이어

【베이루트15日AP=聯合】이스라엘과 시리아는 15일 정오(현지시간)까지 베이루트로부터 시리아軍을 철수시키라는 이스라엘측 최후통첩을 시리아가 거부한뒤 베이루트동쪽지역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최후決戰을 위해 각각 자국병력을 재배치했다고 레바논 관영 TV방송이 보도했다.

이 보도는 베이루트동쪽 구릉들과 봉쇄된 베이루트—다마스커스간 고속도로의 진입로 주변에서 야포및 탱크포를 동원하여 벌어진 4시간동안의 포격전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레바논TV방송은 또 이스라엘군탱크및 병력수송차량(APC)들이 베이루트남부 해변에서 동북부 외곽지대를 굽어보는 구릉들에까지 뻗어있는 弓形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盟邦들、美政策혼돈"

太平洋 頂上회담 개최해야" NYT

【뉴욕15日=聯合】미국은 아시아盟邦들과의 의견을 조정、보다 강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최근 베르사유에서 열렸던 西方선진국경제정상회담과 유사한 태평양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즈紙가 14일 말했다.

뉴욕·타임즈紙는 미국의 아시아맹방들이 미국의 아시아정책목표에 혼돈을일으켜 미국이 지향하는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있다면서태평양정상회담개최를촉구했다.

이 신문은 그 예로 일본이 미국의 방위비증액압력에 반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東南亞국가들은 미국이 中共에 대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있는데 우려를 나타내는가하면 한국은 미국의 對蘇정책이 너무 과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社會漫評

같이만든 床입니다…

朝興行長 李憲升씨

商銀行長 朱仁基씨

株主총회 선임

조흥은행은 16일상오 10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공석중인 은행장에 李憲升전서울신탁은행장(사진右)을 선임했다。

전무에는 宋基台상무 감사에는 李道根상무가 각각기용됐다。 이에따라 자리가빈 이사에는 李裕相인사부장과 李[illegible]자금부장이 승진기용됐다.

상업은행도 이날하오2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은행장에 朱仁基외환은행전무(사진左) 감사에 元應學재무부감사관을 선임했다。 신탁은행전무에는 丘己煥상무가 승진했다.

李外務·日大使요담

李範錫외무장관은 16일하오 신임축하인사차 찾아온 마에다·도시까스(前田利一)駐韓日本대사의 예방을 받고 40분동안 韓·日경제협력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자리에선 경협문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고 한 배석자가 밝혔다.

地平線

미국의 豫言家 데니스·콘킨은 1982년에 이스라엘이 原爆실험을 공공연히하고 1983년엔 소련이 중공과 맹렬한 국경전을 벌여 패배한다고 지난해에 말한일이 있다.

▼이 豫言이 얼마만큼 맞아 들어갈지는 두고 볼일이지만 이스라엘은 核戰爭대신 中東戰을 다시 일으켰고 지금 세계는 핵전쟁의공포하에서 一面군축협상、一面局地戰의 소용돌이속에 있다. 전세계의 핵무기 저장량이 인구 한사람당 TNT화약으로 약10톤분이라고하니 무서울정도가 아니다. 엊그제 소련외상 그로미코는 유엔군축총회에서 소련이 핵무기先制攻擊을 하지않을것이라는 브레즈네프의 메시지를 발표했다。하나 문제는 그것을 어찌 믿을수있겠는가 하는데있다. 秒를 다퉈 먼저보고 먼저쏘는 先制攻擊이야말로 현대전의승패를 가름하기때문이다. 이번의 포클랜드 전쟁이나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침공을 보더라도 아직껏 舊式전쟁단계이지만 누가 더 최신무기를 먼저 쓸수있느냐에 승패는 달려있다.

▼74일만에 끝난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초기에 영국군은 아르헨機의 프랑스제 엑조세 미사일공격에 애를 먹었다. 제비같이 날쌘 영국의 垂直離着陸機 해리어機도 水面 15m低空으로 기습해오는 엑조세 미사일을 못막아 건조비만 5억달러가 넘는 구축함을 두척이나 잃었다. 영국군은 결국 단1발에 36만달러나하는 시다르 요격미사일까지 써야만 했다. 비록 전쟁엔 졌으나 아르헨군이 사용한 프랑스제 엑조세 미사일은 그나름의 평가를받아 정가18만달러짜리가 무기 암시장에서 한때90만달러를 호가케했다.

▼또 레바논상공서의 이스라엘·시리아機 空中戰에는 1백50대의 전투기가참가、史上최대의 현대판科學技術전쟁인電子戰을 보여줬다。시리아군의 蘇製미그機는 미그킬러로알려진 이스라엘의 美製F15·16機앞에 맥을못추어 80臺나 격추되었다。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空對空미사일과 AIM7F형의 스페로 空對空미사일의 威力이 절대적인것을 입증한셈이다。시리아군의 蘇製 샘6地對空複合미사일網은 아주 무력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이 이번 中東戰에서 制공권을 장악한것은 한번에 2백50대의 비행기를 추적、15가지의 요격방안을 알려주는 美製공중레이더機 그루먼E2C의 역할때문이라고도한다。 E2C機는 미국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비슷한데 이스라엘은 이그루먼機를 4대나 갖고있다。

▼세계의 新武器전쟁은 남의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주변의 얘기인것을 새삼 느끼게하는것 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궁중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전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DX Digital Excellence
새로 나왔읍니다.
DIGITAL EXCELLENCE ORGAN 계의 새로운 혁명!
TOTAL DIGITAL CONTROL
DX SERIES···

오리지날 악기의 음색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새로운 성능의 전자올갠 시대가 DIGITAL CONTROL로 다가왔읍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을 연구 발전한 결과 가와이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전반악기 회사로 비약 발전함으로 타사의 추종을불허하게 되었읍니다.
가와이 DIGITAL ORGAN은 250개회로의 특허로 등록되었기에 향후 수년동안은 아무도 이같은 제품을 모방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고달픈 이민생활의 Stress를 Kawai Digital Organ의 아름다운 Melody로 온 가정에 즐거운 시간을 만끽해 보십시오.

★ 한국인의 유일한 가와이 딜러에서는 올갠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에게 2～6개월간 무료로 지도해 드립니다.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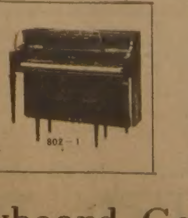
여름철특별대매출
(가와이피아노및 올갠) Bontempi 이태리안 올갠

$7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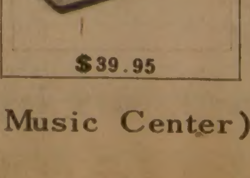
$399.00

$99.00

GS-50


802-1

E-360


$39.95

가와이 Keyboard Center (모짜르트 Music Center)
대 표 윤 호 섭

모짜르트 음악원
여름특강생 모집
기간 : 7월7일～8월25일

특수과목 : THORY(GRADE Ⅰ Ⅱ)
HARMONY(GRADE Ⅲ)
HISTORY(GRADE Ⅳ)

담당교수 : MILA MULGREW,
BARRY SCHONFELD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12:30
수 업 료 : $250

일반과목 : 피아노, 바이올린, 전자올갠, 기—타(GUITAR), 플룻, 첼로, 성악
수업시간 : 월～금 오전10～오후8시까지
토요일 오전10～오후4시까지
수 업 료 : $81(9 LESSONS) 등록금 15불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봉사하는 政治 7년이면 넉넉"

——全대통령-3黨대표 青瓦臺회담 錄音

"任期중 法·秩序지키는 風土조성"

▲全斗煥 대통령=오랫만에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3黨대표=바쁘신데 귀한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柳致松民韓黨총재=지난번 기자회견을통해 대통령을 만나뵈면 시국수습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했더니 黨內에서주문이많았읍니다. 민심이전과 달리 張여인사건을 계기로 불안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與野할것없이 시국수습 방향으로 노력해야겠다는 것이 우리黨의 생각입니다.

議會를통해 政局을 파국으로 몰아넣지않는 범위안에서 수습해야 한다는게 역시 黨의 생각이며 이사건은 총리이하 관계장관들이 책임을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심점이 대통령이기때문에 면서기 하나 잘못해도 대통령에게 원망이 가는 이런 풍조는 지양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라도 內閣이 問責을당하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 이사건의배후라든가 돈의 사용처등이 철저히 가려지도록 관계기관에 독려해 주십시오 (이어 柳총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①현재 구속중인 정치관계인사 학생 종교인들을 과감히 풀어주었으면 한다.

②국회법 언론기본법을 개정하는등 국회가 좀더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었으면한다.

③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라도 실시하여 市道에서문제를 수렴, 해결하도록 되었으면 한다.

④학원문제는 정부가 계속 아량을 보이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해주길 바란다.

⑤時局수습에 도움이 되게하기위해 여야중진회담을 가져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⑥이와 아울러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내어 야당얘기도 들어 이런방향으로 국정을펴 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

⑦대통령任期중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룩될수 있도록 그기반을 조성해주었으면 한다. 우리黨은 현체제가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하고있다.

그렇게된다면이체제에참여한 사람으로서 실망이 없기때문이다.

▲金鍾哲국민黨총재=중복을 피하고 요약해서말하겠읍니다.거액어음사기사건과관련, 問責改閣이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란자리가 어려운일이 많은자리고,잘된것은 얘기안되고 잘못된것만 얘기되는것도사실입니다.지금은 與와野, 그리고 대통령이 따로 있는게아니라는 생각에서 모두가 중지를모으고 화합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가지현안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룰수있는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국회내에 두어서 활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 문제를 풀기위해 국회내에 비상경제대책특별위가 설치됐으면 합니다. 항간에 이른바 한탕주의란잘못된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데 기강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풍조를 철저히 척결해 주길바랍니다. 거액 어음 사기사건과관련해서 지난번 李圭光씨를 구속했을때 全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단안을 내릴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으니 그런 각오로 한탕주의 풍조를 척결해주길 바랍니다.

▲李載灐民正대표위원=과잉투자로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중규모기업을 개발육성해서 2~3년후의 경기 세워주길 건의드립니다

▲全대통령=세분이 [illegible] 서 말씀하신것들은 [illegible] 라 생각을하는 진정에서 나온것으로 생각하며 충분히검토해서 대통령으로서 취할수있는 권한내에서 여러분의건의를 시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하겠읍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내가 최초에 정치 일선에 참여할때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한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민가운데 과연 7년후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의심을 하는사람이 있는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歷代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공약을 해놓고도 마지막에 가서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약속을 어긴 [illegible] 이같은 불신풍조가 아직도 많은 것은 불행하고 유감스러운일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각오를 굳게했지만 내임기중 평화적정권교체전통을 확립해놓아 새로운 정치풍토를 기어이 이룩하겠다는 결심은 앞으로도 추호의 변화가 없을것이다.

과거에는권모술수에능하고 선동을잘하고 정치적인 책임전가를 잘하는사람을 훌륭한 정치가로 착각한적이 있으나 오늘날 우리국민들의 수준과 여러가지체험을 겪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이제 이같은 정치인은용납이 안될것입니다. 권력을 즐기는 사람이면 평생을 권좌에있어도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을위해서 진정한봉사와 희생을하겠다는자세를 가진사람이면 7년의임기도 피곤한기간입니다.

더 해주십사해도 못할것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 되면 내부분열로 우리나라가 더 버틸수 없을것입니다.

在任기간중 나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부정부패를 일소해 놓을 각오입니다.

앞으로 이나라를 끌고 나갈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오래정치할 생각을 말고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을 하다가 평가는 후세의 史家에 맡기고 깨끗하게 물러날 생각을 해야 합니다.

(金鍾哲총재가 건의한) 국회내의 특별위원회구성문제는 항상 국회에서 자주만나 얘기하고 또 이렇게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거액어음사기사건은 조용히 간단히 처리하려면 할수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정에 대해서는 지위의 高下와 친척 여부를 막론하고 전부 공개적으로 명명백백하게밝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비록 내친척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단호히 처벌하는 전통을세워야 하며 금융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도 좋은 轉機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제5공화국이 출범한지 겨우 1년3개월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도 여러분야에서진통기적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모두 이고비를 잘 넘기고 단합해서 1년정도만 더노력해 나가면 모든분야가 정착이 될것으로 봅니다.

나는 내임기중에 진정한민주주의를 위해서 법과질서는 꼭 지키는 풍토를 이루어 놓으려 합니다.

현재 구속돼있는 사람가운데도 다시 한번 조사를 시켜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자유롭게 해줄 생각입니다. 정치활동규제자의 해제문제는 작년 鎭海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전의정이 있다고 확신이 갈때는 모두 해제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생각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도록 고려하겠으니 나에게 일임해 주십시오.

그시대의 정치는 그시대정치인이 책임을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두분이 말씀하신) 책임장관引責문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읍니다.

일이 일어났을때 수습을하는게 국가나 국민에게 이익이되지 사람을 가는게 그리 급한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지난번 주무장관을 바꾸려다 우선 수습하라고 보류했읍니다.

이제 일단 수습도 대충 끝났고 해서 시기를 보아 적정한 시기에 경질을 고려하겠읍니다.

▲柳총재=대통령은 정치의 구심점으로 손상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쓰실때는 국가관과 충성심도 중요하나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사람, 適任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全대통령=지금 세계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도 과거 20년간 重化學투자등 우리의 능력을 넘은 과잉투자로인해 外債가 누적되어 더 고생을 하고있읍니다. 앞으로 국제수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개발, 둘째 품질개선, 세째 원가절감을위한 생산성향상을 기필코 이룩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한해를 합심해 넘기면 우리 경제구조도 강화돼 잘 풀릴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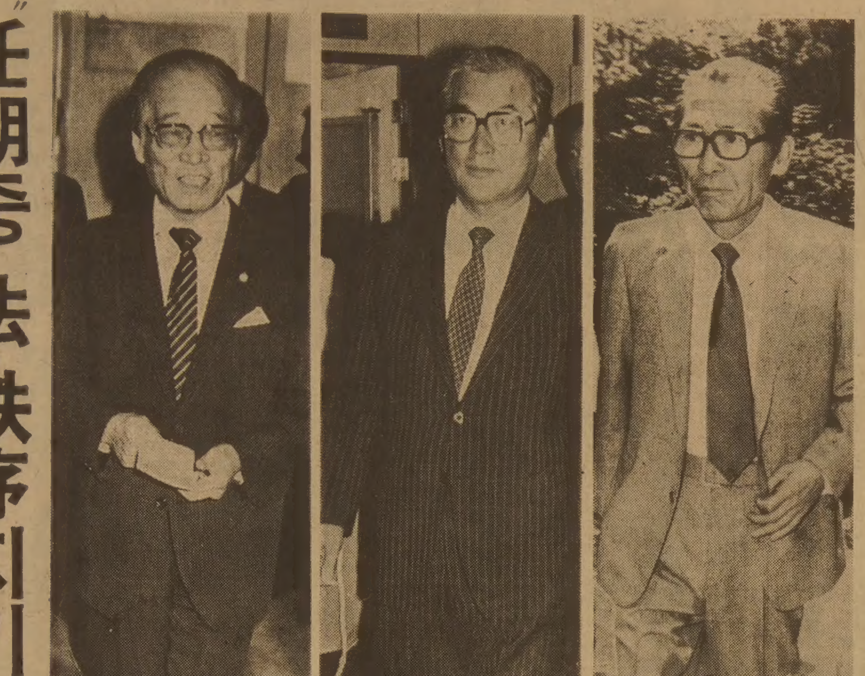
내소망을 얘기하면 지금우리경제가 GNP 600억달러 규모, 개인당 국민소득이 1천5백달러인데 이것 가지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입니다. GNP가 1천억달러 일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만 넘어서면 北傀와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우리 경제가 앞서 갈것이며 앞으로 5~6년만 밀고 나가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임기중에 안보문제는 확고히 다져놓을 생각입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착잡해 北傀위협에 대비한 군사적확보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와의 충돌도 예측할수 없어 이에대한 군사력도 아울러갖추어놓아야 겠읍니다.

세째 내임기중 평화적정권교체의선례를 꼭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이렇게되면 이땅에 민주주의가 토착화될것입니다. 이렇게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사회가 꼭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통일문제가 현실적으로 앞당겨지고 기반이 다져지도록 해놓을생각 입니다. 앞으로 5년내에 통일문제와 관련한 어떤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하는 전망도 해볼수있읍니다. 지금 北韓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변화의조짐들이 나타나고있으며 이어려운 문제들은 가까운시일안에 가라앉지않고 점점더 어려워질것으로 전망합니다.

시국수습과 民心의 소재를 알려주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國政을 운영해나가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협력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협력해주셔서 격동이 예상되는 80년대를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는데 지혜를 다모으고 더욱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黨職者끼리도 자주 만나시고 나는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자주 만나도록 하겠읍니다.

▲3黨대표=귀중한 시간을 내주고 저희들의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



◇青瓦臺 들어가는 3黨대표　全斗煥 대통령의 초청으로 時局수습등 國政전반에관한 회담을 갖기위해 청와대로 들어서는 3黨 대표들. 李載灐民正黨 대표위원(左)의 밝은 표정과 柳致松民韓(中) 金鍾哲 국민당 총재의 굳은 표정이 對照的이다.

柳총재　地自制 단계적實施를
金총재　非常경제對策委 필요
李대표　金融감시制 보강돼야

青瓦臺회담 그후

解氷政局의 실마리

民意수렴,內實있는 실천을 國家경영에 與野초월 새章

지난 5월7일 李哲熙 張玲子부부가 外換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시작되었던 張여인 파노라마는 40일만인 16일 青瓦臺의 3黨대표회담을 고비로 대화정치에의한 정치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것 같다.

全斗煥 대통령주재로 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는 그동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주장해온 관계각료의 추가引責을 위한 改閣이 약속되었고 時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것이다.

이 회담에서는 또 비록 李·張부부사건뿐만 아니라 야당측이 주장해온 정치활동 被규제자의 解禁문제까지 거론되어 「아직은 시기尙早이나 적절한 시기에 풀겠다」는 약속도 나왔고 全대통령은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7년單任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회담 결과에 대해 李載灐 民正黨대표는 「與野간은 물론 새로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만든 정치회담이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했고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이번 회담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것 같다」면서 만족한 표정.

특히 柳총재는 정치활동被규제자의 解禁이 단계적으로 실시될것같다고 전망하고 「야당으로서 할 얘기는 다했다」고 전했다.

金鍾哲국민당총재는 「허심탄회게 국민의사를 수렴했다는 점에서 유익하게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논평을 했다.

民正黨은 정치적인 측면은 총재인 全대통령에게 모두 맡기고 경제적인면을 주로 제시했으나 야당은 內閣의 책임추궁, 구속중인 정치인 종교인 학생의 해방, 국회와 언론의 活性化, 地自制실시, 평화적 정권교체보장등 그동안 주장해온 각종 정치적 요구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동안 當面문제로 지목되고있던 모든것들이 최고위 정치 테이블에 올려져 허심탄회하게 의견이 오간 것이다.

이러한 고위정치회담은 회담 그자체에도 의의가 있지만 이 회담의 所産으로 나올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에서 제기된 여러가지문젯점들이 문제의 제기에 그치지않고 이를 종합적으로 치유하는 妙方이 나올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후속조치는 시간을두고 나올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흔히들 예상되고있는 追加引責改閣이 곧있을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관계각료의 引責도 수습책이 마련된뒤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有力하게 나돌고 있기때문이다.

全대통령은 「수습도 거의 끝나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고 한것으로 보아 길게 끌것 같지는않다.

改閣의 시기도 관심을 끌고 있지만 어느수준의 각료들까지 포함될것이냐는 범위에 대해서도 주목되고있다. 劉彰順국무총리가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弔問使節로 떠나기때문에 일단 改閣범위에서 제외되는것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民正黨의 한 소식통은「초상집에간 사람이 오래있겠느냐」고 의미있는 反問을 던지기도했다.

장관의 任命은 국무총리의 제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점에서 劉총리의 사우디行次기간중에는 改閣이 없을것이라는 예측도 나돌고 있다.

장관임명의 제청은 총리不在중 부총리가 代行할 성질의 업무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렇게 볼때 追加改閣은 劉총리 귀국후인 이달말께 있을것이라는 推理가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사건이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감안한다면 금주말에 최소한 改閣이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택해 전격적으로 斷行해온 최근의 改閣스타일로 보면 더욱 그럴듯하다.

그러나 경제관계에 관한 수습책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내다보고 있는것같다.

民正黨의 金瑢泰대변인은 「3黨代表의 青瓦臺회담이 끝나더라도 보도진의 추궁때문에 나서는 상당기간동안 괴로움을 받을것같다」고 의미있는말을 기자들에게 던지고있다.

金대변인은 회담후정부와 民正黨간에도 후속조치를위한 협의가상당기간 계속될것이며 民正黨은 나름대로의 건의를 준비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최근의 역사에서는 드물게, 어느 特定문제를 풀기위해 모인 異例的인 이번 青瓦臺회담은 그동안 여러차례 정치적 決斷을 동원했지만 李·張사건의 불길을 잡지못해 최후의 수단으로 모색된것이었다.

그정치적 決斷은 5월20일 權正達의원이 退陣하는 民正黨의 대수술에이어 이틀날에는 11개부처장관이 바뀌는 대폭改閣의 충격요법으로 鎭火작업에 나섰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운것이 아니었다.

이어서 5월28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이사건을 다루었지만 불길은 여전했고 野黨측이 제출한 각료解任案과 國政調査特案의 부결로 政局은 더욱 梗塞의 분위기를 맞게되었다.

이러한 政局梗塞를 풀기위해 民正黨은 3黨3役회의를 제의함으로써 民韓黨이 제시한 領袖회담을 수락할 태세를 갖추었고 3黨총장회담에서 결국 青瓦臺의 3黨代表회담이라는 突破口를 마련한것이다.

정부와 與黨의 대폭적 개편과 국회의 논의가 이문제를 푸는데 한계를 드러내자 時局觀을 달리하던 與野의 代表들이 한자리에 모이게된 것이다.

최근에는 前例를 별로 찾아볼수 없는 이런 고위정치회담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直面했을때에는 정당을 초월하고 與野를 떠나서 공동책임을 갖는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서 국가경영에 同參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점에서 높이 평가될수 있을것이다.

한마디로 이번회담은 얼어붙은政局과 흐트러진 民心수습에 따른 時局안정에 青信號이자 解氷의 轉機를 마련했다고 볼수있다. 【黃昭雄기자】

메아리

돌아간「望鄕」

최근 中共의 사회과학연구원산하 한 기관이 발표한 「中共의 少數民族」이란 보고서는 현재 1백68만명의 韓民族이 中共땅에 살고있음을 밝혔다. 한국에 가깝고 韓人自治區가 있는 吉林省에만도 1백4만명이 머물고 있다한다. 「부지런한 民族」으로 정평이 날만큼 모두가 근실하게 생활한다는 전갈이다.

하나 그들 대부분의 꿈은 생전에 母國인 大韓民國땅을 한번 밟아보는것—. 이런 한국교포에게 中共당국이 처음으로 出國허가를 내준것은 1965년1월이었다. 옛동림장관 車均禧씨의 부친 車永煥옹이 바로 그 첫出國者였다.

요즘은 中共을비롯한 東歐공산국들과의우편물교환길이공식으로 트여 서신왕래는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다. 주소를 못찾아 中共으로 되돌아가는 편지통수도 연간 1만을 넘는다. 보태서 40년 혹은 50년만에 아주 돌아오는 교포 가족들역시 점차 느는 추세다.

한데 이번에는 40년을 그곳서살아온 한교포할머니(梁順德씨·57)가 고국땅을 찾기위해 코밑인 日本까지 나왔으나 中共公館측이 국교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방문을 불허,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 갔다한다.

梁할머니는 瀋陽市서 일곱식구를 거느리고 품삯일을 하면서 먹는것마저 줄인끝에 1천元을저축, 죽기전 고향형제들이나 한번 만나겠다고 귀향길에 올랐었다는 것이다.

그의 국적이 비록 中共이라해도 東京의 한국대사관은 梁할머니에게 입국사증을 내주고 싶었지만 中共당국의 사전승낙이없어 못주었다 한다. 梁할머니는 駐日中共大使館에 찾아가 방한승인을 재청했을뿐 더러 공관의 권고대로 北京에 탄원서까지 냈지만 中共당국은 끝내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그의 발길은 이래서 그냥 돌려질수밖에 없었다.

그 뒷모습 속에서 우리는 梁노파외의 거의 모든 재외교포들, 특히 북방대륙에 흩어져사는 동포들의 진한 호소를 알아차릴수 있다. 살아생전 한번만이라도 고향을보고픈그心情들! 88올림픽때는 中共교포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政府에서 힘써달라는 호소의 편지가 수없이 날아드는것도 그 때문이다.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떼를 바라보다 굳어버리기전에…』來往과교류를 터 달라고 신문사에다 호소하는 것도 연유는 같다.

中共서의 永久歸國者는 있었어도 일시방문을 희망한경우는 이번梁할머니가 첫事例인듯하다. 그래서中共측의 여행허가가 안났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좀 더 人道的인 차원에서 中共 당국도 우리 동포들에게 이산가족 재회와 母國방문의 길을 열어줄 수는 정녕 없을까.

海外토픽

★1년동안에 7천통 걸어 戀敵에 電話공세

戀敵을 괴롭히기위해 1년동안 7천여통의 전화를 걸어댄 한 질투심많은 일본여인이 체포됐다고 오오사까경찰이 15일 발표.

올해 37세의 야스다·아야꼬라는 이여인은 6년동안이나 사귀어오던 20년연상의 한 회사중역이 1년전부터 42살난 스낵바여주인과 가깝게지내자 이에 화가난 나머지 작년4월부터 밤낮을 가리지않고 스낵바에 익명의 전화를 걸어대다가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된것. 【오오사까=AP】

★아르헨·벨기에戰에몰두 蹴球보다 지각사태

수만명의 타이 직장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월드·컵축구 개막전중계를 지켜보느라 14일 아침근무를 설쳤다고.

아르헨티나와 벨기에가 대전한 월드·컵본선緖戰은 타이시간으로 14일 새벽1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됐는데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타이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를 관전하다가 지각사태를 빚은것.

또한 타이의 축구열을 반영하듯 방콕의 5개일간지는 월드·컵대회의 우승팀을 정확하게 맞힌 독자들에게 현금 TV세트 냉장고 비디오 설비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현상을걸었다. 【방콕=AP】

한국일보
533-2361

蘇, 核무기先攻안해 그로미코外相

【유엔本部15日AP 聯合】소련은 전쟁에서 核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드레이·그로미코 소련외상이 15일 유엔軍縮특별총회에서 다짐했다.

그로미코외상은 이날 軍縮특별총회에서 대독한 蘇聯共産黨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 의장 브레즈네프의 메시지에서 이같이 다짐하고 다른 核보유국들도 상응한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巨龜莊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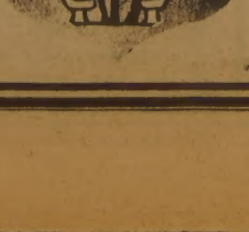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 은은하고 감미로운 음악…
○ 흥겨운 댄스를위한 노래가락…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영업시간〉 월·화·수: 오전11～ 새벽1시
목·금·토: 오전11～ 새벽2시
일요일: 오후2시～ 새벽1시



웨트레스급히 구합니다.
742—1618

高淑鍾여인 保釋

서울高法 결정 3백3일만에 自由의 몸

검찰、抗告포기…오늘중 석방

◇석방결정된 高淑鍾씨

서울龍山區元曉路 尹景花씨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7)에게보석이 허가됐다。

高피고인에게 지난10일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재판부인 서울고법제2형사부(재판장 金永振부장판사)는 16일 하오『高피고인의 변호인 金炯準변호사의 보석청구가 이유있다』는고인정、보석금 2백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高피고인의 주거는 서울城北區貞陵洞290의41자택으로 제한되었다。

高피고인은 지난해 8월17일 구속된후 1심(82년2월1일)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관계법조항 때문에 풀려나지못하다가 구속된지 3백3일만에 풀려나게 된것이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사실을 검찰에 즉시 통보했는데 검찰은 3일내에 보석결정에대해 즉시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기간내에 항고가없으면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된다。

그러나 3일내에라도 검찰은 포기의사를 밝힐수도 있다。

항고를 포기할경우 검찰이 보석보증금을 납부받고 석방지휘를하게된다。

한편이날하오 검찰은 법원의 高씨보석결정에대한 항고를포기、高씨는 17일중 석방되게됐다。

丁淳喆피고인에 징역10년

光州 美문화원 放火사건求刑

朴啓東피고엔 4년

서울지검공안부 任彙潤검사는 16일 光州美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丁淳喆피고인(27)에게 현주건조물방화、계엄포고령위반、밀항단속법위반죄등을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金憲武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丁피고인과함께 기소된 朴啓東피고인(30·高大4년제적)에게는 계엄법및 밀항단속법위반죄를 적용、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光州미문화원방화와 高大학생소요배후 조종등 혐의로 지난80년6월 지명수배됐는데 지난1월 全南高興에서 日本으로 밀항하려다 적발돼 도주했다가 지난3월 釜山美문화원방화사건의 용의자로 다시 수배돼 검거됐었다。

선고공판은 7월5일 상오 10시。

釜林사건 被告들에 검찰、최고10년求刑

【釜山】부산지법제1형사항소부심리로 15일하오열린 釜林사건관련 이상록 피고인(26·北區周禮1洞)등에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구형량과 같이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 구형하는등 16명의 피고인에 최고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에서 최하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을 각각 구형했다。【聯】

金常起씨夫人 입건

不正수표團束法위반 혐의로

서울西大門경찰서는 16일 거액의은행돈을 유용하고 자살한 전朝興은행 明洞지점차장 金常起씨의 부인 申文子씨(37·서울西大門區延禧2洞84의1)를 부정수표 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의하면 申씨는 지난76년 11월3일부터 朝興은행 중앙지점에 당좌거래를 트고 수표를 발행해왔는데 지난달 11일 金모씨에게 발행한 액면6천3백만원 짜리를비롯、3차례에 걸쳐 발행한 7천3백만원상당의 당좌수표를 부도낸 혐의를 받고있다。

부도가 난 3매의 수표중 6천3백만원짜리 수표에는 서명은 申씨명의로 되어있으나 도장은 金씨의것이 찍혀있었다。

"錢主·移民브로커·換錢브로커·銀行員 組織的인 犯行단정"

돈 바꿔간 金琫燮씨등 手配

百3名 여권盜用 또는 僞造

34萬弗사건 4萬弗 換錢한 李炯出은 架空

◇일찌온「한여름」…그늘이 좋아

낮최고기온이 28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자 시원한 그늘이 그리기만하다。 더위를 피할곳이 없는 서울도심 노인네들은 요즈음 매일 숲이울창한 聖水洞 뚝섬 유원지 그늘에 모여 더위도 잊고 외로움도 달랜다。【16일낮 뚝섬 유원지에서】

金浦공항34만달러 밀반출기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南部지청은 16일 돈임자가 이민알선브로커와 환전브로커、은행원등과 긴밀한 관계를맺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4개시중은행에서 이민수속자의 여권을 위조 또는 도용해 환전해간 金琫燮씨(31·서울江南區驛院洞 한신공영、13차아파트329동1201호)와 李永鎭씨(33세가량·주소불명)등 2명을 긴급수배했다。

검찰은 이날 이민대행업소인 H사의 직원 李모씨(45·서울 龍山區 漢江路1街14의19)로부터 李炯出씨(40·서울九老區宮洞192의19)의 여권을 위조、환전브로커에게 넘겨주었다는 자백을 받았는데 따라서 朝興은행半島지점에서 지난14일 17명분의 이민여권을 제시、4만달러를 환전해간「李炯出」은 가공인물이며 진짜李炯出씨(40·서울九老區宮洞192의19)는 이날현재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수배된 金琫燮씨는 1년동안 서울신탁은행에서 7만2천달러를 환전했고 李씨는 외환은행등에서 7백만달러를 환전해간사실이 밝혀졌는데 검찰은 이들의 1백3명의 여권을 도용했거나 위조한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대행업자 李씨가 자신에게 여권수속 갱신을 의뢰한 이민희망자들의신원을 알아내 이들 이름으로 여권을위조、여행자수표를발급받는데 이용했거나 李永鎭등 환전브로커들에게 넘겨준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이름을도용당한 李炯出씨는 지난79년6월18일 미국에가있는 동생으로부터 이민초청을 받고 이민대행회사의 李씨에게 자신과 부인·장녀·장남등가족과 여동생(31)등 5명의 여권수속을 의뢰、발급받았다。

◇수배된 金琫燮씨

李씨는 지난 12일 여권을 갱신하기위해 동생을 시켜 H사에 여권을 맡긴후 20일만인 지난달31일 찾아왔다는것。

이밖에 金모씨(35·서울江西區新亭洞)도 李씨와 비슷하게 여권을 맡겨왔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半島지점 환전담당대리 金圭澈씨(34)에 따르면 李炯出명의의 여권을제시하고 TC를 발급 받아간 사람은 7년전부터 은행을자주 들락거려 얼굴은 알고있었지만 그가 어디서 무슨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가 해외개발공사 직원을 사칭、외환은행 三一路지점등에서 지난1년동안 7백여만달러를 환전해간 李永鎭과 동일인물일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또 환전과 관련 은행직원이 공모 내지는 묵인해주었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이 은행과의 관련이있다고 본것은 조흥은행 半島지점 여행원 李모양이 李炯出명의의 여권을 제시하고 TC발급을 요청한 사람의여권에「환전필」이란 도장이 찍혀있어 이사실을 대리金씨에게 말했으나 金씨는『그냥 환전해주라』고 말했다는 진술과 金琫燮씨의 집에서 환전에 사용하는 서울신탁은행 서류4장이 발견된점등을 근거로 하고있다。

金씨집에서 발견된 은행서류는「외화대체입금표」「타발환보고」「전산자료용」「당발환보고」「입금표」등으로 이서류는 지점과 본점사이에환전업무를 결제하는 서류로 5월17일이란 날짜만 찍혀있고 다른난은 공난으로 비어있다。

불법換錢묵인 드러나

外換규정등 補完시급

서울지검南部지청이 34만달러밀반출기도사건을 수사하는과정에서 은행의 환전창구직원들이 환전브로커들과 결탁「환전필」도장을찍지않아 재사용이 가능하게하거나 환전에사용된 여권의 환전필도장을지우고 다시 환전해가는것등을 묵인했음이 드러나 시중은행의 외환관리규정에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환전창구에서 단편적인 환치기수법이 있었던것은 사실이나 이번34만달러사건을 계기로 환전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거액의환치기및 불법적인 환전을해왔고이렇게해서빼낸달러가암달러시장에 유입되거나 직절국내밀수조직이나 재산도피조직에 공급되고 있음이 입증됐다。

환치기에 악용되는 가장손쉬운 빈틈은 현행외환관리규정의 인증생략조항。기본여행경비인 3천달러(14세이하 1천달러)까지는 아무런 인증절차없이 여권사본과 여권만 제출하면 환전을 해주게끔돼있다。

게다가 예외규정이있어 단체여행객이나 가족인경우 본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환전이 가능하다。환전브로커는 이같은 빈틈을 이용,주로 여행경비를 적게 갖고 나가는 이민여권소지자、단기여행자의 여권을 모아 환전할때 거액의 외화를 모을수 있다。

실제로 몇년전 중동건설업체 송출직원들이 근로자여권을 이용 이같은 환치기를 해 말썽이 된적이 있었다。 은행외환관계자들도 이같은 환치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환치기는 환전창구에서 은행원도 할수있다。 즉 한도액까지 못바꾸는 여행자의 양해를얻어 그마진을 자신이 환전해 암시장에 흘려보낼 가능성은 얼마든지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은행창구직원과 결탁할경우 환전브로커들은 여권하나를 갖고 여러번 환전할수도 있다。즉 환전을 해갈경우 은행창구직원은 환전은행·날짜·액수를표시한「환전필」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주도록 돼있으나 은행원이 눈감아주면 다시 얼마든지 환전할수있다。또「환전필」스탬프가 찍혔더라도 환전브로커가 이를 교묘히 지우고 다시 환전을 요구할경우 은행원이 묵인할때도 있다。

은행원과 결탁할 필요도없는 방법이 위조여권을 사용하는것。하루에도 수천명이 몰리는 환전창구직원이 위조여부를 확인하기란 사실상불가능한일로 그대로 환전해줄수밖에없다。또 진짜여권을 소지하고 환전해갈 경우도 가짜 여권소지자가 환전해갔는지를 확인할수없다。

같은 여권을갖고 환전을여러번 하든 위조여권으로 환전하든 은행에서는 확인할방법이 없기때문에 이같은 불법적인 환전은 제도적인 보완이없이는 사라질수가없다。

美術대회 入賞者 受賞 모른채溺死

【大邱】미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게된 대학생이 입상소식도듣지못한채 숨져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제9회 경북미술전에서 양화미술부문에서 서양화「상념」으로 영예의 은상을 수상하게된 전용기군(21·安東교대 미술과2년)은 지난7일하오1시30분께 경북 安東郡豊川面河回洞 낙동강부용대부근에서 목욕을하다 익사하는바람에 수상작품이 유작이되고 만것。【聯】

一家族 동반自殺 기도

가정不和로…夫婦중태

【忠州】가정불화를 비관한 일가족4명이 동반자살을 기도、부부가 중태에 빠졌다。

15일 상오8시께 충북中原郡上芼面溫川里 사보이 산장여관에 투숙한 정종영씨(48·서울道峰區水踰洞540)와 정씨의처 한순례여인(37)·장남태윤군(16) 차남태종군(9)등 일가족4명이 수면제를먹고 신음중인것을 여관종업원 강애송씨(28)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발견즉시 忠州제일병원으로 옮겨져 두아이들은 깨어났으나 정씨와 한여인은 중태이다。【聯】

다이어반지등 털어

光山에 果刀든強盜

【金城】16일 새벽3시께 전남光山郡松汀邑명동리810 정종승씨(40)집에 20대강도가 침입、잠자고있던 정씨가족을 과도로 위협하고 손발을 노끈으로 묶은뒤 장롱을 뒤져 다이어반지1개(싯가1백만원상당) 금반지1개(싯가9만원)등을 털어 달아났다。【聯】

끝내못푼「望鄕의恨」

在中共교포 日本까지왔다 되돌아가

【東京】중공에 살고있는 한 한국교포가 40년만에 애타게 그리던 고국땅을 밟으려고 일본에까지 왔으나 뜻을 이루지못하고 16일 허탈한 심정으로 다시 中共으로 되돌아갔다。

梁順德씨(57·여·사진 瀋陽市皇姑7區 明康路明忠里22호)는 지난4월2일瀋陽市에서그의 7식구가 아무것도먹지않고 한달급료90元을 꼬박 11개월동안 저축해서 마련한수있는 1천元(한화44만원)의 거금을 들여 韓國에 살고있는 혈제를 만나기위해 日本에까지 왔었다。그러나 주일中共대사관은 韓國과 국교가없다는 이유로 이여인에게 끝내 한국행 허가를 내주지않아 이날 도오꾜(東京)에 살고있는 오빠 梁判山씨(61)만 만난채 제2의 고향 瀋陽으로 돌아갔다。【聯】

노인5백명 就勞

裡里、福祉策일환

【裡里】전북裡里市는노인복지시책의 하나로 17일부터 오는10월말까지 5백명의 노인을 취로시켜 시내 번영로등 7개 주요간선도로변 23㎞에 꽃길조성사업을 펴기로했다。

시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어 제초및 시비작업등 관리도 노인들에게 맡길방침이다。

한편 대한노인회 이리지부는 노인들이받는 노임중에서 성금을 모아 1백만원의 노인회기금을 마련키로 했다。【聯】

「호랑이 선생님」

名譽교사 자격증1號 趙卿煥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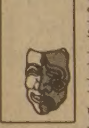
"발랑까진 어른스런 어린이가 싫다"

씨름선수같은 우람한 체격에 함박웃음을 뿌리고다니는 탤런트 趙卿煥(38·사진)은 별명이 2개다。「趙형사」와「호랑이선생님」。

16일 具本錫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명예교사 자격증(제1호)을받는자리에서『어느쪽이더 마음에드느냐』고 했더니「호랑이선생님쪽」이라고 했다。

그는 12년째계속되는 주간극「수사반장」에서 형사역으로 호연하면서「여성팬이 가장많은」대중의 스타가 됐다。

그런데 요즘의 趙卿煥은 여성보다는 어린이들의 우상으로 변모해버렸다。



「호랑이 선생님」에서의 그는이름부터 촌티가 물씬나는 許風洙。강원도산골국민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다 서울로 전근온 경력3년의「때묻지않은」총각교사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도시의 문명화된 어린이들에게 엄격하고 인정이 넘치는 담임교사상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는『작가(李錦林씨·여·전培花여고교사)와 PD(金承洙·34)의 대본과 연출에 따르는 연기자에 불과하지만 심심한 스승의 표상으로「애어른」이 아닌「어린이다운 어린이」를 길러내고자하는데 연기의 촛점을 맞추고있다』고말한다。

호랑이 선생님은『요즘와서「선생님이 최고」란 생각도 식어가고 또 어른스런것이 똑똑한것이라고착각하는 부모들도 많은것같다』고 나름대로 도시어린이들의 세계에대한 지적을 했다。

또 그는 어린이교육의 기본이 가정교육에서 이뤄져야한는데『요즘엄마들이 과연 최선을 다하고있는냐』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털어놓는다。

작년도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한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율조사결과단연1위(39.1%)를 차지한「호랑이 선생님」에서 趙卿煥은 처음엔

『잠바차림으로 교단에 서다니…』『흑판글씨가 엉망이다』등등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적도 꽤나 받았었다고 회상하면서『요즘은 판서도 또박또박 잘한는 모범교사가 되어버렸다』고 웃는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이「호랑이선생님」에게 갈채를 보내는것은 아마도「박봉의 샐러리맨」여성의 직업으로 이행돼가고있는 오늘의 교사에대한 이미지와 달리 극중의 趙卿煥같은 둔탁하고 불의를 못참는 남성교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탓일듯싶다。

「호랑이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것은 필요이상으로「발랑까진」어른스런 어린이였다。【申鉉鈺기자】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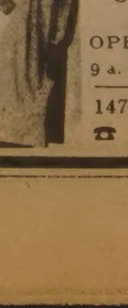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PM~4AM 토~일: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코너)
☎: 977-9734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425-5656(Miss. 정)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뎀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368-3470
Queen
Bay
Temperance St.
Yonge
King

Maximode



○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챗은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MON(월)~SAT(토)
9 a.m.~5 p.m (오전 9 시~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2층)
☎: 596-141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10-1 強豪 헝가리 鍊習하듯 엘살바도르 골門 유린

키스、大會첫 해트트릭 기염
9點差 승리는 歷代 세번째

월드컵축구

제3일

【마드리드15日聯合】헝가리는 16일새벽(한국시간)엘체市에서 벌어진 제12회 월드컵축구대회 1차리그 3일째 예선3조 첫경기에서 약체 엘살바도르에 소나기슛을 퍼부어 10-1로 대승했다。이날 헝가리의 라스즐로·키스는 후반들어 연속 3득점, 이대회 첫 해트트릭을 올렸다。

스코틀랜드는 뉴질랜드에 5-2승리
페루·카메룬對戰은 得點없이 무승부

말라가市에서 열린 6조경기에서 스코틀랜드는 뉴질랜드를 5-2로 격파、1승을 거두었으며、고투나市서 거행된 1조 페루-카메룬 경기는 0-0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헝가리가 기록한 10-1、9골차의 승리는 역대 월드컵본선 타이기록이었다。이때까지 최다득점차기록은 지난54년 스위스월드컵서 헝가리가 한국에 9-0으로、74년 뮌헨월드컵서 유고가 자이레에 9-0으로 대승한 것이었는데 이날 헝가리가 또 다시 10-1로 엘살바도르를 물리쳤다。

월드컵 지역예선 최다득점 기록은 69년 西獨이 키프로스에 12-0으로 이긴것이었다。

1차전서 약체팀과 맞붙는다는것은 힘만 빼고 고전하기 쉬운것。

먼저열린 1조경기서 강호 페루도 카메룬과 무득점으로 비긴 상황이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강호다왔다。4분만에 주장 티보르·니라시가 첫골을 터뜨림으로써 이런우려를 말끔히씻었다。니라시는 엘살바도르 골문앞에서 파제카스의 코너킥볼을 받아 헤딩슛、선제점을 올렸다。

10분에는 가보르·폴로스케이가 두번째 득점을 올리고 24분 파제카스가 골을 넣어 전반서 3-0으로 대세를 결정짓고 후반서 7골을 추가했다。엘살바도르는 후반20분 사파타의 득점으로 영패를 면했다。

〈월드컵TV방영일정12면〉

◇제3일 전적

▲1조
페루 0 (0-0, 0-0) 0 카메룬
(1무) (1무)

▲3조
헝가리 10 (3-0, 7-1) 1 엘살바도르
(1승) (1패)

▲6조
스코틀랜드 5 (3-0, 2-2) 2 뉴질랜드
(1승) (1패)

◇개인득점 (16일현재)

▲3골=키스(헝가리)
▲2골=와크(스코틀랜드)、파제카스(헝가리)、닐라시(헝가리)
▲1골=반덴베르그(벨기에)、소크라테스(브라질)、에데르(브라질)、달그리시(스코틀랜드)、우딩(뉴질랜드)、섬너(뉴질랜드)、폴로스케이(헝가리)、젠테스(헝가리)、사파타(엘살바도르)、로버트슨(스코틀랜드)、아치볼드(스코틀랜드)

한국도 54년 스위스大會서 9點差大敗

헝가리가엘살바도르를10-1, 9골차로 대파한 사건은 한국축구의 30년전 악몽을 되살아나게 했다。

6·25동란의 아픈상처를 딛고 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은 터키에 0-7、헝가리에 0-9로 참패하여 월드컵 본선 최다실점의 오명을 갖게되었다。

당시의 헝가리는 유럽의 최강으로 홈그라운드서 무패기록을 자랑하던 잉글랜드를 웸블리서 6-3으로 물리쳤고 불멸의 FW 푸스카스가 한참 명성을 날리던 때였다。

국제공식대회서 한국의 최다실점은 48년 런던 올림픽때、스웨덴에 0-12로 대패했었다。64년 東京 올림픽서 한국은 체코에 1-6、브라질에 0-6、아랍공화국에 0-10으로 패해 예선탈락의 고배를 들었다。

필리핀은 67년가을 東京서 열린 멕시코올림픽 지역예선 日本과의 대전서 0-15로 무참히 굴복、최다실점팀이 됐다。

대통령배국제대회서는 72년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을 12-0으로 대파한것이 최고기록이며 한국의 최다득점은 79년대회 방글라데시와의 경기서 기록한 9-0。

17일경기 (한국시간)

▲2조 (기존)
서독—알제리 (상오0시15분)
▲4조 (발바오)
잉글랜드—프랑스 (상오0시15분)
▲5조 (발렌시아)
스페인—온두라스 (상오4시)

86년 월드컵축구 24개팀 本選出戰
아벨랑제會長

【알리칸테(스페인)15日AP聯合】국제축구연맹(FIFA)은 15일 오는86년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월드컵대회에도 24개 본선진출팀이 참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FIFA회장인 브라질의 아벨랑제씨는 이날 이곳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시대적 조류에 맞춰 이번 스페인대회부터 24개팀으로 늘어난 본선진출팀을 차기대회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벨랑제위원장은 FIFA가 14~16세의 어린이월드컵대회와 여자월드컵대회 개최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있다고 밝혔다。

◇월드컵축구 페루-카메룬경기에서 카메룬GK 엔코머가 넘어져있는가운데 페루의 스타플레이어 쿠비야스⑯가 골문을향해 슛하고있다。【라코루나(스페인)AP聯合】

스페인·월드컵
펠레 리포트 ③

브라질-蘇戰 윙플레이 對決
新型이 古典스타일에 이긴셈
아르헨의 맥없는 競技에 큰失望

나는 지중해변 알리칸테에서 쉬면서 깊은 의문에 빠졌다。아르헨티나는 왜 벨기에에 패했으며 브라질은 어떻게 蘇聯을 패배시켰는가。나의 의문은 특히 윙에 관한문제였다。

아르헨티나는『브라질은윙이 없으며 따라서 그라운드를 넓게 쓰지 못한다』고 브라질을 비난해 왔었는데 아르헨은 막상 벨기에와의 대전에서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나는 세빌리아에서 蘇聯이 고전적 형태의 윙·플레이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蘇聯의 윙·플레이는 브라질을 놀라게했으며 아직도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소련의 올레그·블로킨은 옛날우리가 보던 윙들처럼수비들을 제치고 터치라인을따라 폭풍처럼 날아가 볼을 가운데로 보냈다。

물론 나는 옛날의 스타일에 애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그보다는 잔디를 제대로 자르지 않은 스페인의 구장같은 곳에서 월드컵을 치르지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소련의 작전에대해 브라질은 브라질대로 대응할방법을 갖고있었다。브라질은「더욱 현대적인윙」으로 블로킨의 책략에 대응했다。

에데르(24·1m76、70kg)。

현대적 윙인 그는 자물쇠가 채워진 소련 수비진을향해 스피드를 가속하는 플레이는 효과가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의 무기는 스피드가아니며 볼의 통제력이다。볼의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살짝 가라앉히기도 하고 띄워보내기도 하고 낮고 강하게 날려보내기도한다。볼의 방향은 무한하고 스피드 또한 다양하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볼의 조작으로 소련수비진을 농락했다。양쪽 사이드 돌파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스피드만을 즐기지않는 에데르가 바로현대적인 윙이다。

브라질의 팬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古都세빌리아를 브라질의 국기색인 노랑과 초록으로 물들였다。나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않다。내 기분은 그들과 같기때문이다。

현재의 브라질은 8년간묶여있던 수비와 쇠고랑을 벗어버렸다。브라질은 74년 西獨에서、78년 아르헨티나에서 수비축구를 하다 벌을 받지 않았던가。

브라질이 소련에 골을허용한뒤 냉정한 자세로 차례차례 동점골과 결승골을 만들었던 그 자세를 존경하고 싶다。그들은 스탠드의 팬들보다 더 침착했다。브라질이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소크라테스의지도력때문이었다。그가 1-1 동점골을 만든 공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브라질이 당연히 우승할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그러나 매우 조직적인소련을 처리한 브라질의 재능은 브라질이 충분히 우승할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아직도 길은 멀다。나는 西獨의 경기를 보기위해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나의 동포들이 여기서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느낌을 받았다。

13일 개막식에 이어 벌어진 아르헨티나와 벨기에의대전은 아르헨티나의 체면을 깎아내린 경기였다。음악적인 스페인 사람들과 후안·카를로스 국왕이 참석한가운데 벌어진개막식은내가 본 그어떤개막식보다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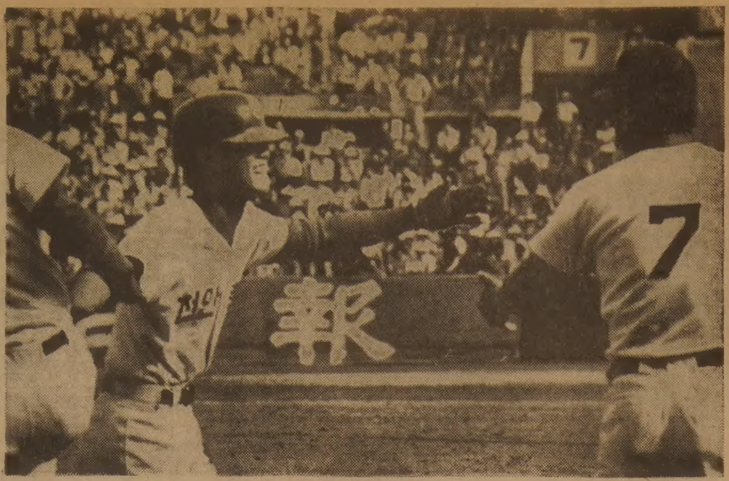
그러나 요란한 개막식은 막상 경기가 시작되었을때는 클라이맥스가 지난듯한 기분을 주었다。경기후에 개막식을 갖는것이 좋지 않았을까。

나는 아르헨티나가 개막경기에서 힘을 못쓰고 자빠진 것에대해 크게 실망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아르헨티나가 결국 브라질 西獨 스페인과함께 준결승전에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벨기에도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보인다。

마천루같은 벨기에의 수비들은 마라도나와같은 조그마한 아르헨티나 공격수들위에 솟아 있었다。아르헨티나의 공격수들은 벨기에 수비들에게 방해물이 되지못했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5得點의 起爆 天安北一高와 慶北高의 준결승전。5회말 北一 6번 趙光衛이 솔로 홈런을 치고 홈인하고있다。北一은 홈런을 발판으로 5회서 5점을 올려 승리를 굳혔다。

北一、決勝高地 섰다

中高野球 強打線 폭발…慶北 제쳐

天安北一高가 작년도 우승팀 慶北高를 꺾고 결승에 올랐다。

16일 서울운동장에서 진행된 제37회 전국중고야구선수권대회 11일째 준결승전에서 北一高는 5회말 6번 趙光衛의 왼쪽 담장을 넘기는 축포를 신호로 5안타를 집중하여 단숨에 5득점、강호 慶北高를 7-4로 꺾었다。

北一 선발 安聖洙의 호투에 눌린 慶北은 7회초 金吉善을 릴리프로 내세운 北一마운드를 적공、無死만루를 만들었으며 다시 등판한 北一 安聖洙의 데드볼2개로 3점을 만회했다。

慶北마운드는 北一 6번 趙光衛의 홈런 한방으로 무너졌다。慶北은 선발 李常勲대신 文炳權을 내세웠으나 속수무책。유격수 柳仲逸을 마운드에 내세워 北一타선을 간신히 진정시켰다。

北一은 7번 任學彬의 좌전안타 9번 吳孝根의 우익선상으로 빠지는 3루타로 1점、1번 曺良根의 중월2루타로 또 한점、2번 金光允의 내야안타와 慶北내야진의 실책을 묶어 5회에 5득점、승기를 잡았다。

3안타로 눌리던慶北은 7회초 北一마운드가 휘청한틈을 타 불로소득의 3점을 빼내 추격했다。

3번 金大植의 데드볼 4번 柳仲逸의 포볼 5번 李常勲의 내야안타로 無死만루를 만든후 李政潤의 내야땅볼로 1점이어 7번 安國泰가 포볼을골라 또다시 1死만루가 되었다。慶北은 8번 金允榮 9번 柳光鎭이 北一투수 安聖洙로부터 잇달아 데드볼을 맞아 2점을추가、7회에 안타없이 3점을 만회했다。

北一은 7회말에 집중3안타로 1점을 추가、慶北추격에 쐐기를 박았다。

◇제11일준결승

경북고	000	000	301	4
북일고	100	050	100	7

▲홈런=趙光衛(6회·북일)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한국代表 2連勝

和蘭4個國농구 브라질을 93-83격파

【칼펜(네덜란드)=聯合】제1회 네덜란드 초청 4개국 친선농구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여자대표팀은 16일 새벽(한국시간) 이곳 에멜로드 시 보스바트할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2일째 경기에서 朴贊淑·金和順·洪惠蘭의 활약으로 브라질을 93-83으로 꺾고 2승을 기록했다。

美國대표팀도 홈코트의 네덜란드를 70-64로 꺾어 2승을 기록、17일새벽 한국과 우승을 겨루게 됐다。

◇제2일전적

한국 93 (46-40, 47-43) 83 브라질
(2승) (2패)
미국 70 (30-24, 40-40) 64 네덜란드
(2승) (2패)

企業銀팀 西獨제압

印尼 마라할림·컵蹴球

【자카르타15日聯合】인도네시아의 마라·할림컵쟁탈 축구대회에 참가한 한국(기업은행)은 14일밤 북부수마트라의 메단시에서 벌어진 西獨과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이날 西獨과의경기에서 전반39분 귀중한 한골을 성공시켰다。

濠洲는 이날 인도네시아의 세마림과 1-1 비겼다。

◇14일전적

한국 1-0 서독
호주 1-1 인도네시아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8>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용달 ⑱

『일환이? 일환이가 누구더라?』

춘자가 그녀 특유의 아둔한 눈을 깜박거리면서 물었다。

『왜 있잖아? 고아원이 해산되기 전해던가、전전해던가 보일러 가게로 취직해서 나간 꺽다리말야。아마 나보다더 나이배기는 그오빠였을걸』

그녀는 춘자가 일환이가 누군지도 잘생각나지않는 눈치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으응、그 못생긴 뻐드렁니?』

『예는 그 오빠가 그렇게까지 못생기진 않았다 넌』

『그 뻐드렁니가 안못생겼다구?』

춘자가 별안간 허리를 야릇하게 비틀고 깔깔댄다。무엇을 생각하고 웃는걸까? 그녀는 요새 일환이를 그녀가 실제로 알고있는 것보다 더 익히있는 알고것처럼 느끼고 있었다。자주 생각하기때문이었다。기록에다 키를 재고 눈금을 새겨주던 일로부터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라면을 끓여주던 일까지 소상하게 기억해 내고 친근하게 길들이는 일이 그녀가 요새 마음속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주된 일이었고 단 하나의 위안이었다。

일환에게만은 모든것을 다 말할수 있을것 같았다。그에겐 용서를 빌거나 할 필요가 없으리라。그 또한 용서같은 주제넘은 짓을 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잊어버려 못된 꿈을 꿨구나 할 것이다。아냐 못된 꿈이 아니라 헛된 꿈이었어 라고 그의 말을 정정해도 그는 탓하지 않겠지。꼭 아식 그래 그거지뭐 하고 씩 웃는게 고작일것이다。그는 착하고 둔감하니까。

오목이는 일환이의 착하고 둔감한 걸 구원처럼 갈망했다。그에게 순종과 정숙을 맹세함으로써 헛된 꿈에서 깨어나고 싶었다。그는 종당엔 그의 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줄 것이다。그녀가 꾼 꿈이 얼마나 못된 꿈이었던가를。

아아 그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나에게 편안을 주었으면。

오목이는 자신의 이런 간절한 기구가 걸린 일환이를 춘자가 제발 모독하지 말길 바랐다。

『왜 웃니?』

오목이는 춘자의 출렁이는 풍만한 상체와 그것과는 별개의 물건처럼 무겁게 내던져진 풍족한 다리를 바라보면서 날카롭게 물었다。혐오감이 쓰디쓴 굴즙이 되어 입안에 괴었다。

『웃기는 일이 생각나서 그래? 내가 공부는 못하는 주제에 사춘기는 남보다 빨라 원장 아버지를 깜짝깜짝 놀래켜준 일、언니도 생각나지? 이건 원장 아버지도 감쪽같이 모르게 한 장난인데、나 말야、언니、〈오누이의 집〉머슴아들하고 다 한번씩 뽀뽀해봤다。놀랐지? 언니 그렇지만 머슴아들은 죄 없어。그래 내 쪽에서 모셨으니까。그때 뻐드렁니만 빼고。그 뻐드렁니하곤 도저히 그런 장난칠 마음이 안나더라니까。오죽 못 생겼으면 나같은 바람둥이가 다 따돌릴 마음이 났겠어?』

춘자가 다시 재미나서못견디겠다는듯이 몸을 흔들까불며 웃었다。오목이도 보일듯 말듯 안도의 웃음을 웃으면서 생각했다。

춘자는 일환이의 뻐드렁니만 알지 그 순한 눈은 모르리라。더군다나 그 착하고성실한 마음을 알리가 없다。못생기게 어찌 뻐드렁니뿐일까? 펑퍼짐한 코도 볼품 없긴 마찬가지였다。그러나 그 못생긴게 그를 춘자의 문란한 입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줬다면 앞으로 한없이 경허한 마음으로 그 못생긴걸 어루만지고 사랑할수있으리라。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버라이어디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버라이어디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도넛츠·숍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넷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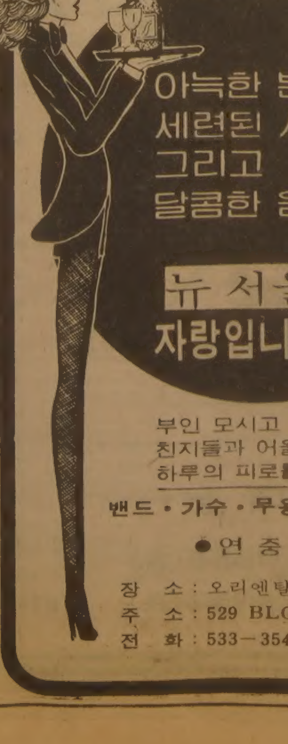
中國良藥 大量供應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수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416) 977-8858-9
10AM → 8:30PM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소: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소: 529 BLOOR ST. W
전화: 533-3545~6, 533-1500

曺薰鉉、名人戰타이틀 지킬까

徐奉洙、王位 2勝2敗로 막판에 올려

제13기 名人戰 도전5번기 중 제3국이 18일 한국기원에서 열린다. 이 대국은 지금까지 2승을 올린 曺薰鉉名人이 3연승으로 쉽게 타이틀을 지킬것인가, 도전자인 徐奉洙7단이 막판에서 1승을 건지느냐로 棋界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曺名人은 5월19일 霞堂여관서 열린 제1국에서 집흑으로 1백99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으며 31일 한국기원특별대국실서 열린 제2국에서도 집백으로 2집반을 이겨 타이틀방어를 눈앞에 두고있다.

趙治勳、고바야시컴플렉스씻어

棋王戰 도전싸고 金寅등 3巴戰

바둑소식

○…趙治勳4관왕이 本因坊타이틀전과 碁聖도전자 결정 3번기에서 天敵 고바야시(小林光一) 9단에 대한 콤플렉스를 떨쳐버리고 3승1패를 기록, 그의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本因坊 타이틀전 제1국을 단한수의 실수로 小林에게 역전패당한 趙4관왕은 2국에서 심기일전, 역전승을 거뒀으며 碁聖戰도전자 결정전에서도 2연승으로 小林을 일축하고 도전티킷을 쟁취한것.

趙4관왕이 本因坊戰 제2국을 승리로 이끈 것은 지금까지 승리의 가두를 무인지경처럼 달려오던 小林에게 제동을 걸었다는점에서 큰의미가있다. 고바야시9단은本因坊도전자리그에서 7전전승으로 도전권을따낸후 本因坊에게 1승을 거두어 아무도 그의기세를 꺾을수없을것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趙9단에게 강해 이번 도전기는물론 다른 대국에서도趙9단이 일방적으로 밀릴것으로 본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趙4관왕이 예상을 뒤엎고 小林에게 3연승을 거두자 역시 일본기계의 제1인자는 趙4관왕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17일 하오 늦게 밝혀지는 本因坊戰 제3국의 승패여하에따라 두사람의 세력판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제7기 棋王戰의 도전권을 두고 金寅8단, 徐奉洙7단, 金熙中6단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徐奉洙7단은 5일열린 도전자리그 제17국에서 姜勳4단을맞아 집백으로 2백66수만에 불계승을거둠으로써 4승1패를 기록했다. 현재 棋王戰본선의 선두주자는 3연승을거둔 金寅8단이며 4승1패의 金熙中6단과 徐奉洙7단이 뒤를 바짝 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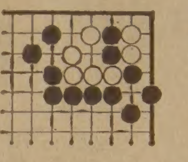
이날 별도로 열린 제22기 最高位戰본선 제6국(敗者戰 제1국)에서는 洪太善4단이 집흑으로 林宣根2단에게 5집반을 이기고 2회전에진출했다.

曺薰鉉名人은 15일 한국기원에서열린 제16기 王位戰도전7번기 제5국에서 徐奉洙王位에게 불계승을 거두어 종합전적 3승2패를 기록했다. 曺9단은 王位戰에서 한판만 더 이기면 王位戰타이틀을 탈취함과 동시에 재작년에 이어 또한번 全冠王의 대기록을 세우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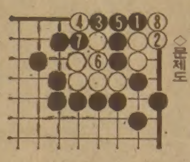
이날 대국은 백을 쥔 徐王位의 실리와 흑을쥔 曺9단의 세력으로 중반까지 팽팽히 균형을 맞추는듯했으나 후반에 가서 흑의 집이 앞서자 徐王位가 1백77수만에 돌을 던졌다.

어쩌면 曺名人이 天下再統一을 이룩하게될 王位戰도전 제6국은 22일 열린다. 【梁平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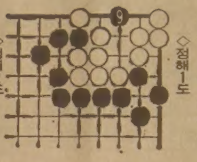
묘수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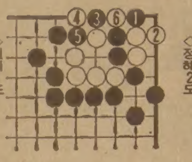
◇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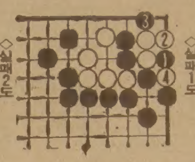
◇정해1도



◇정해2도



◇실패1도



◇실패2도

〈문제도〉 黑先

〈정해1도〉 黑1 젖히는것이 맥점. 白이 그의 빈 3각형으로 버티면 黑3이 연이은 묘수. 黑은 5점으로 키워버리는데…。

〈정해2도〉 黑9로 치중을하면 白은 5점을 잡고도 살수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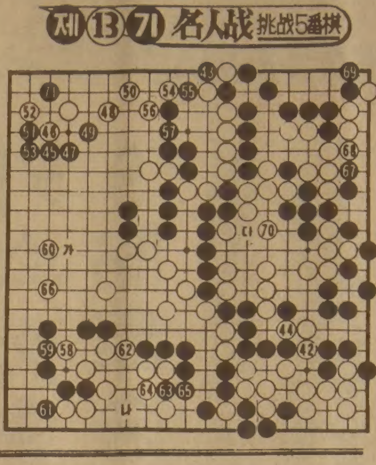
〈실패1도〉 그러나 黑이 5로 정해1도에서처럼 이어 키워 죽이지않고 단수를칠 경우 白6으로 패가난다.

〈실패2도〉 黑1로 궁도를 좁혀 잡으려들면 白2의 강수때문에 패가 난다.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1局 第12譜 142~171

白 (挑戰者) 徐奉洙
黑 (名人) 曺薰鉉
(각5시간·덤5집반)



전보에서 발생한 상변의 패는 白42·44와 黑43의 교환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이 패로는 黑의 대馬, 白은 돌이 될수없는 절망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도전자가 1분바둑에 몰린 때문에 수를 제대로 읽지못한데에 있었다. 그러나 실은 名人도 마찬가지로 초읽기에 몰려 黑43의 실점에서는 나머지 3분밖에 안되었다. 1분대 3분, 초시계를 꽉 쥐고 앉은 초읽기에 몰린 기록자 바둑은 정확을 기하노라고 대국자 못지 않게 초긴장이었다.

名人도 초읽기에

黑45, 좌상귀에 착수하여 黑의 호조는 분명하다. 승리를 굳히려는 名人과 재역전을 노리는 도전자. 초읽기 발악으로 파면 끝내기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수순을 따라가본다.

黑51은 「가」자리도 좋은곳이며 보통수법이지만 승부를 속히 끝내려고 한것.

白60과 黑61은 맞보기인곳. 白62에 대한 黑63, 65는 아마추어가 본받아야할 멋진수법이다. 이것으로 퇴로黑「나」에 치중하는 수가 남게되었다.

白66때 黑67을 선수하고 우상귀를 黑69로 지킨것이 꽤잡히 있었으며 白70을 손빼면 黑「다」로 끊고 떼어서 우상白이 헤어나지 못한다.

黑71, 오메이는게 좋은 곳이지만 초급자에게 다음 白의응수와 변화를 숙제로 남겨둔다. 【一凡】

趙容弼 음악가족회

◇趙容弼

가수 趙容弼의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弼기획은「趙容弼음악가족회」(일명 팬클럽)를 결성하고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가입자격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趙容弼을 아끼는 팬이면 되는데 음악가족회원전·음악가족대회개최등 가족적인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라고. 한편 弼기획은 趙容弼의 연예활동을 지원해줄 후원회 결성도 준비중에 있다.

「DJ에게」새앨범 尹시내 新曲10곡

오름으로 노래하는 가수 尹시내가「DJ에게」라는 이색타이틀의 앨범을 출반했다. 임선경작사·崔鍾赫작곡.

「DJ에게」는 그가 지금까지 불러온 노래들과는 달리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미로운 여운을 남겨주는 새로운 창법의 노래라는 평. 타이틀곡외「그대 사랑했노라고」「근심은이야」「한동안은」「어쩌면 말인가요」등 신곡 10곡이 수록돼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39〉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응달 ⑲

일환이의 찌죄죄찌든 내복과 오래동안 감지않아 푸라기처럼 뻣뻣한 머리털도 생각났다. 그런것들을 빨고 씻기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가 놀라서 만류하거던 말하리라. 나는 당신의 발뒤꿈치를 씻길 자격도 없는 노라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공상만이 오목이를 잠시나마 구원했다.

일환이에 비해 춘자가 알고있는 건 못생겼다는게 전부였다. 오목이는 그걸로 스스로 만족하려들었다.

『술을 또 밤차 탈 시간이 되네』

춘자가 서랍장위에있는 화장품을 주섬주섬 방바닥으로 끌어내리면서 하품을 했다. 썩은 이가 드러나는 큰하품이었다. 춘자가 밥벌이 나가는 술집 이름이 「밤차」였다. 밤차 탈 시간이 되면 춘자의 얼굴에도 어쩔수 없이 나그네의 고달픔과 우수가 서린다. 그건 때에 따라서 막연한 그늘이었다가 엄숙한 기미였다가 어렴풋한 주름살이었다가 했다.

춘자는 어떻게든 그것을 떼해보려고 족자구나 찍어바르고 문지르고 두드렸다. 오목이는 춘자가 화장하는 걸 보면 그 시간이 언제든 간에 밤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았다. 마치 춘자의 방이 작은 간이역인 것처럼 방앗을 지나는 외풍에도 허술한 문을 흔드는 바람결에도 목메인 기적이 섞여 있었다. 오목이가 환각하는 밤차는 아직도 구식 증기기관차에서 칙칙폭폭하면서 달리다가 날카롭고 긴 기적을 울렸다.

가출(家出)했다는 두려움이 문득 오목이의 작은 가슴을 짓눌렀다. 행복한 집의 추억없이, 홀로 떨어져 독립된 가출의 실감은 밤차를 기다리는 외딴 역만큼이나 처량맞았다.

도대체 춘자는 매일밤 밤차를 타고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그럴때오목이는춘자에게서 마치 외딴역에서 오다가다만난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호기심과 피상적이고도 순간적인 사람을 느꼈다.

『언니도 한번 밤차에 나와보지 않을래요?』

춘자가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이렇게 비쳤다. 벌써몇번짼지 몰랐다.

『내가 왜?』

오목이가 질겁을하는 양을 바라보는 춘자의 입가에 조소가 맴돌았다.

『구경삼아』

『구경하고싶지 않아』

『왜 구경하다 뭐가 묻을까봐? 아니면 우리 잘난언니 어디가 깎일까봐?』

『춘자야, 제발 비꼬지말아』

『비꼬는게 아니라 우스워서그래. 내눈엔 언제고 그렇게뻔히 보이는데 언감생심 말도 못붙이게 도도하게 구는 언니가. 언니, 아무리 버텨봤댔자야. 말짱 헛수고야』

춘자는 마치 여자의 운명을 수도 없이 확습한 늙은여자처럼 자신있게 그리고 공허하게 말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오목이는 마음속의 남안을 지우기위해 날카롭게외쳤다. 춘자가 늙은 여자처럼 지혜롭고 씁쓸하게 웃었다.

『나라고 뭐 곰장 이렇게 된줄 알우? 나도 언니처럼 버티기도하고 망설이기도했다구요. 그야 언제 그렇게 되느냐 걸리는 시간이야 서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차피 그렇게될 팔짜걸. 언니는 새침뚱이, 나는 바람뚱이라고 해봤댔자 한쪽은 완행열차에 한쪽은 급행열차 정도의 차이나 나면 났지 우리 팔짜가 어디로 간답디까?』

流星의 賦 〈41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⑧

권율은 흑제남의 협력으로 독산산성과 행주산성에서 지구전(持久戰)의 태세를 견지할 수있게 되었다.

그런데 임진의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우리들의 전세가 전국적으로 아연 활기를 띠었다는 사실을 알아둘만 하다. 평안도에서, 함경도에서, 경상도에서 각각 눈부신 전과를 올린 것이다.

평안도 중화군(中和郡)에선 임중량(林仲樑)과 윤봉(尹鵬)이 의병을 모아 일어서서 소서행장(小西行長)의 군에 도전하여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임중량은 키가 팔척이며 그 재지(才智)는 지략 사람들을 압복케 한 인물이고, 윤봉은 고려조 문숙공의 후손으로서 의기(義氣)에 넘친 인물이었다.

이들에게 호응한 사람으로 전만호 차은진(車殷軫)이 있고, 군인 차은락(車殷洛)이 있다.

임중량은 평양성 가까이에 가서 대동강변에 다음과 같은 푯말을 세웠다.

『우리는 너의 소굴을 소탕하려고 한다. 싸우려거든 나와서 싸우고 그렇지 않거든 물러가란』

소서행장은 이것을 보고 그의 부장에게 격퇴명령을 내렸다. 임중량은 조금 싸우다가 조금 후퇴하고, 다시 싸우다가 후퇴하여 적을 보루(堡壘) 근처로 교묘히 유치하곤, 패한 척 보루안으로 후퇴하여기(旗)를 내려놓고 북을 엎어놓고 죽은듯이 엎드려 있었다.

적은 보루 안에 방비가 없다고 판단, 한편 운제(雲梯)를 보루 위에 걸어놓고 개미떼 처럼 기어올라왔다. 시기를 포착한 임중량의 명이 내리자, 우리 군사들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적을 향해 기와와 돌을 던지고 화를 쏘았다. 긴 자루에 달린 바가지로 끓는물

을 펴서 후리기도 하고, 구워 놓은 돌을 철수(撤手)로 던져 적의 갈목을 치기도 했다.

적은 혼비백산 도망을 쳤다. 그것을 추격하여 거의 몰살하다시피 했다. 기록에 의하면 적의 시체가 보루의 높이로 쌓이고, 적의 피로써 참호가 찼을 정도라고 하니 대단한 전과이다.

임중량은 서전(序戰)에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후, 더욱 군사의 훈련에 힘쓰는 한편 병기와 기계를 정비하여 평양을 수복할 계획을 착착 진행시켰다.

이상이 11월 말까지 있었던 일인데 12월에 들어서자 대설(大雪)이 내려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새벽, 적은 대병력을 동원하여 기습을 감행했다. 보초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실수였다. 그편 임중량은 전상(戰傷)으로 민가에서 치료중이었고 의병부장(義兵副將)으로 윤봉이 지휘를 맡고 있었던 터였다. 윤봉은 자기의 형 윤린(尹麟)을 보루에서 떠나게 하고 사생(死生)을 결해 보루를 지킬 각오를 했다.

보루가 함락되기 직전 어느 군교가 윤봉에게 피신할 것을 종용했으나 윤봉은 듣지 않고 허사현, 윤인함등 여러 부장과 함께 적진을 향해 돌격했다.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때 백설은 개개하고 안목은 황량했는데 섬벽을 넘어오는 적들은 검은 설중에 빠져 동하이 치분한지라, 윤봉의 강궁(強弓)은 매발필중(每發必中)하니 적은 백설을 선혈로 물들이고 넘어졌다…』

그러나 윤봉은 이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流星의 賦 〈41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壬辰의 해는 저물어 ⑨

중화의 보루는 이욱고 함락되고 말았지만 그 전투로 해서 적에게 가한 타격은 한량없는 것이 되었다.

이보다 더 혁혁한 전과가 함경도 길주 쌍포에서 있었다. 이 전투를 지휘한 사람은 의병대장(義兵大將) 정문부(鄭文孚)。

9월30일 전투에서 전사자 6백여명을 내는 패배로 인하여 길주성 주둔의 적은 성문을 굳게 닫고 농성의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의병대장 정문부는 적을 포위하고 있다가 12월 10일을 기하여 직접 길주성을 공격하게 되었다. 동원된 병력은 3천. 적의 병력은 약1천여명이었다.

적은 1천명이었으나 조총을 비롯해 우수한 무기로 장비되어 있는 정병들이어서 정문부는 정공법(正攻法)에 의하면 희생이 클것으로 판단하고 전략을 바꾸었다. 즉 병력을 구분하여 성밖 4、5개 지점에 분산 매복케 했다가 적이 성밖으로 나올때, 이를 포위 섬멸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때 적의 일부병력은 마천령 아래에 있는 책성(柵城)안에 있었다. 이 병력은 해정창 지금의 성진을 지키는 동시 마천령 남쪽에 있는 단천군(端川郡)과 연결하는 거점(據點)이었다. 정문부는 먼저 이 책성의 적을 무찔러 후방과의 연락을 차단하여 길주성을 고립시켜 놓고 수비병력을 송두리째 섬멸할 계략을 세웠다.

그리하여 정문부는 주력군을 일단 책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책성의 적병 4백명이 길주에 집결하기 위해 책성을 떠나 쌍포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정문부는 기정 방략대로 이 적을 공격하기로했다.

이러한 우리의 계획을 알 까닭이 없는 적군은 마음놓고 길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는데 복병장 김국신(伏兵將 金國信)부대의 기습을 받고 혼란에 빠졌다. 아군의 삼위(三衛)가 한꺼번에 일어나 적을 전, 좌, 우 삼방면으로 포위하고 치열한 공격을 퍼부었다.

피아간에 백병전이 벌어져 전투는 사뭇 치열했다. 그리고 드디어 참수한 적의 수급 백여개, 노획한 다수의 군기, 각궁(角弓), 도창(刀槍) 등의 전과를 올리고 전투는 끝났다.

이 전투에 있어서의 수한자는 복병장 김국신을 비롯하여 김자, 한인제, 김범확, 함이량, 강문우, 박곤수, 이보언, 유대난, 황사원, 한대방, 박명세, 정룡신, 한연세, 노응태, 김경복, 최안, 안욱, 이응운, 정견룡, 노명수, 이계난, 김병식, 김천석, 유경천등이다.

이 전투는 극히 중요한 전투이며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로써 북도를 완전히 수복하게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못지 않은 승전이 경상도 성주에서 있었다. 아군이 성주의 적을 공격한 것은 8월21일, 9월12일 두차례에 걸쳐 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12월 중순을 기한 삼차의 전투에선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경상도 의병대장 김면, 경상도의병부장 장윤, 전라우의병장 최경회, 경상도의병장 정인홍, 전라좌의병장 임계영등의 합동작전으로서 이룩한 이 승전으로 말미암아 이욱고 아군은 성주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차도제장(此道諸將)이 부약불원(負約不援)하였으니 불승분완(不勝憤惋)」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의병장들의 협동이 훌륭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토론토시

쓰레기수거일변경

도미니온데이
1982년7월1일(목)

1982년7월1일(목)에는 쓰레기 수거가 없읍니다. 정기 목요일(7월1일)수거는 7월5일(월)에 있읍니다.

상기사항:

토론토에는 17개소의 유리와 금속을 재생하는 장소가 있읍니다. 4월동안 344톤의 신문지와 71톤의 유리조각, 그리고 7톤의 깡통이 수집됐읍니다. 더 이상의 안내는 367-7742로 전화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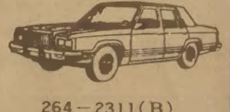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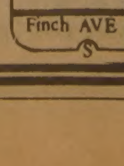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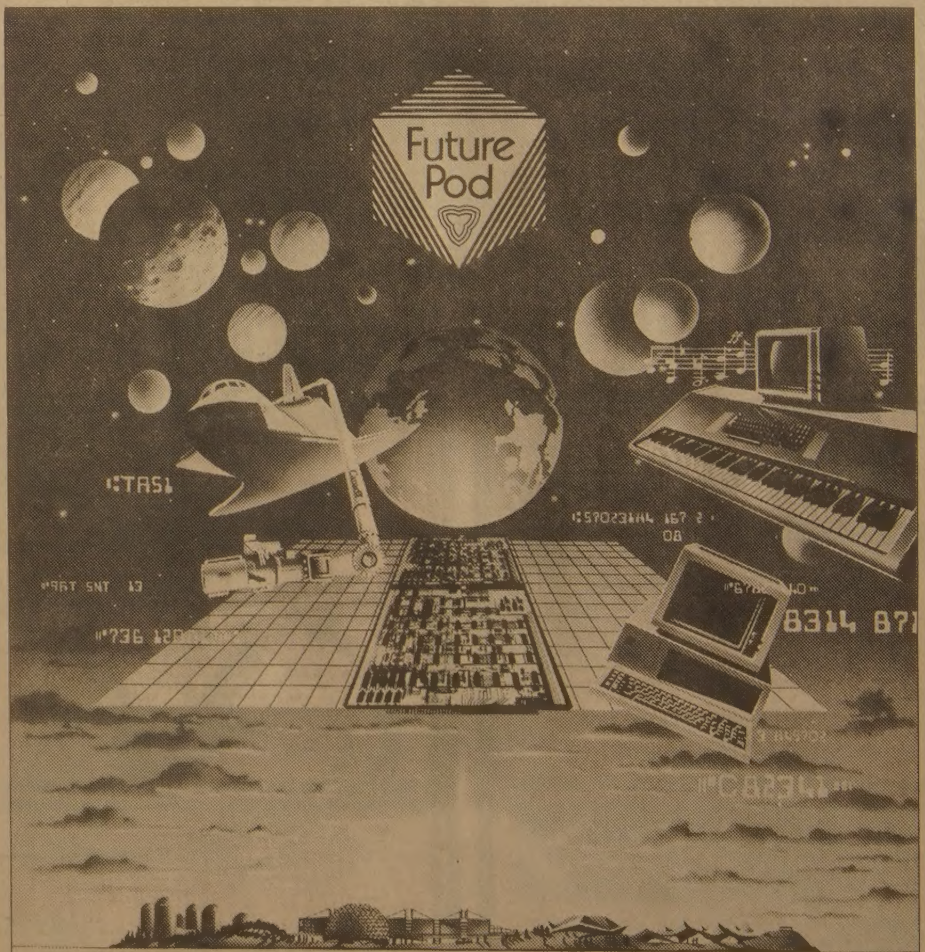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즐겁고, 매력있고, 경이로운

오늘 온타리오·플레이스에서 미래의 온타리오 모양을 보십시오.

매일 개장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9시30분까지이며 온타리오·플레이스는 무료입장입니다.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전화 : 691-6768
곽 덕열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스포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총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브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 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하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오후3시부터 밤8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5시간씩)집에 오셔서 살림 돌보아 주실분 구함. (보증인 필요함), 어린애들 12살, 9살. 저녁과 간단한청소.
전화 769-4366 Mrs. 김(오후6시 이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지렁이 잡으실분. 유경험자 최고가격
전화 : 245-1694

Store Manager구함 (경험요망)
Downtown 지역
전화 : 368-8138

유 경험 웨이트레스 구함.
희망자는 460 Dundas St. W.로 내방바람.
(3:00 p.m.이후)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유경험자)
미시사가 론·파(Lorne Park)지역
전화 : 278-8101

지렁이 잡으실분.
Weston & Finch지역
전화 : 741-2557

Canadian 남성(Mid 30's)으로서 친구가 되어 주실 매력있는 한국여성을 찾습니다.
오후 6시이후. 전화 : 787-3302 (David)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구 직

두살 이상의 아기를 저의 집에서 성의껏 보아드리겠읍니다. (미시사가 지역)
전화 273-4670

구 혼

결혼상담 , 직업소개(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28세된 총각이 신부구함.
신부 연령은 22세에서 30세까지
○ 가게운영을 희망하면 결혼전에 형님이 가게를 사주겠음.
○ 현재 주 $400 집에 갖어옴.
전화: 881-4007 오전9시-오후2시사이에 연락바람(Mr. 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일은행	865-0456

매매및 양도

House for Sale (Private)
Det. Brick Sidesplit Bunglow.
3 Bed Room + Finished Basement.
Mortgage: First for $75,000 at 13% Due in 1984
이주 관계로 좋은 값에 팝니다. Rent도 가능합니다.
(Markham & Lawrence지역)(R)461-3363,(B)463-7423 Mrs.Kim

Restaurant, Tavern, Hotel & Drive in Burgers at 쎄인캐서린, 나이아가라
1)좌석20개와 17개. 15년리스. 식당과태번은 다운타운에 좋은 위치에 있음. 좋은 가격.
2)28개의 Unit가 있는 호텔(나이아가라 폭포). 좋은 가격.
3)HWY3에 있는 18에이커의 상업대지 급매. (Crystal 과 Fort Erie가는 길임) 플라자나 Drive in Burger, 도너츠·숍지역으로 적당. Traffic이 많은 HWY3 교차로 Gas Pumps있음.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신분 1-892-2089 또는 657-1722(오후5시이후·토론토)
NICK KARAN R·E. BROKER

---

1) Somke & Gift Shop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렌트 : $660
아스킹 : $50,000.

2) Fast Food Take-out Business
주매상 : $5,000. 주5일 Open. 바쁜 네거리에 위치한 Office Building 내.
리스 : 1990년. 렌트 : $830. 아스킹: $225,000

3)번화한 공장지대에 위치한 드라이브인 햄버거·숍
주매상 : $8,000. 리스 : 4년+옵션. 렌트 : 1,700. 아스킹 : $350,000

A. E. LePage (Ontario) Ltd.
Tel: 741-9170 (Mrs. Woo)

다른 사업관계로 매우 성업중이며 대단히 바쁜 지역의 꽃가게(Retail) 매매. 주변에 Free Parking도 가능함.
넓이 : 3,650 Sq.ft.
전화 : 1-634-9679 John
(오후 6시 이후 연락바람)

Variety & Hardware Store.
넓이: 2,000 sq.ft.(큰 Plaza안에 있음)
리스: 4년+5년. 렌트: $1,700(Monthly)
주매상: $9,000 이상 아스킹: $100,000+스탁
361 Carrville Rd. Unit 1-2. Thornhill, Ontario
(Hill Crest Shopping Mall 옆)

Downtown에 있는 식당매매(가족끼리 하기에 적합)
월수입: $13,000. 아스킹: $65,000(주류면허 있음)
전화 : 844-2950(B). or 845-5670(R) (마르칸토니오)

비즈네스 또는 건물딸린 비즈네스 매매.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성업중인 케익점.
661 Bloor St. W. 전화 : 535-8605

Donut Shop 매매.(Downtown지역)
주매상: $5,500~6,000 리스: 2+5+5+5(17년)
전화 : 977-2299 (Mr. 최)

Variety Store(Whitby Shopping Mall 센터)
가격: $39,000 주매상: $4,500 렌트: $1,100
3년리스 + Negotiation 전화: 1-579-4507 Mr.Lee

Franchise(후렌차이즈)
영구적인 안정된 사업체
881-8230 Mr. 윤

경쟁없는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스토아(Tuek Shop)
주매상 : $3,000이상(꼭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위치 : 114 Forsythe St.(Oakville) 전화: 842-2917

Variety Store급매.
주매상 : $4,500+로타리오(3 Bed Room 포함)
리 스 : 8년 전화 : 421-5151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전강상 급매코저 함.
(일요일 문닫음) 주매상: $4,000 리스 4년반+5년옵션
전화 : 757-9410

자동차 급매. 75년식 벤추라 4 Dr.
P.S./P.B Auto-Trans. 260V8
전화 : 746-4289 Mike

야마하 피아노 스튜디오 싸이즈
(STUDIO SIZE)
전화 : 766-8849 Mr. 문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465 Vaughan Rd. Tor.
관심 있으신분 내방 바람.

매상이 계속 늘고 있고 주위에 경쟁없는 Variety Store 사정상 급매. 주매상: $3,500
전화 : 239-7267

호텔, 모텔, 타번(술집) 사업매매에 관심이 있는분. 전문적인 호텔, 모텔, 타번등의 많은 비즈네스를 갖고 있음. 전화 : 223-1600 (Mr. 캐비츠)

Milk & Grocery Store 급매
주매상: $4,500 가격: $43,000+스탁, 렌트: $1,000
936 College St.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Mr. 손

Hardware & House Ware Store
높은 이익과 낮은 Rent,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음.
928 Danforth Ave. 전화: 466-3423 (죠지)

Store 장비 팝니다.
캐쉬 레지스터, Scale(저울), Shelf 등등.
전화 : 249-9773

오타와 지역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함.
전화: 1-613-238-3837 Mr. 정

Variety & Cosmetic 급매.
절호의 챤스, Stock만 인수. 또는 Manager를 채용할 의사도 있음. 전화 : 654-4709

전망좋은 밀크스토아 매매.
휜치×베더스드 지역.
전화 : 222-5370

2층 살림집 포함한 Downtown에 위치한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전화 : 769-3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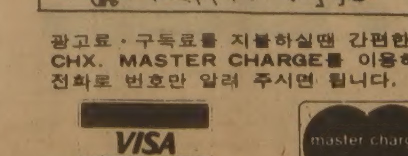
Dry Cleaning(Depot)Store for Sale.
◉ 스카브로 지역. 아스킹: $3,500(플라자안에 있음)
7 Chelwood Road. (B)751-7615(오전8시30분~오후4시)

비데오 아케이드 세 일
짧은 시간 적은 자 본
전화 : 266-9770 (낮12시~저녁10시 사이)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하우스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 하실분.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 앞.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광 고 접 수
533~2361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부동산(매매)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퀸스웨이×이슬링톤 전화 : 252-7377 Mr. 안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Peter's Photography.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 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